보험동향

| 총괄 | 김세중 (연구위원)
| 경영환경 | 김윤진 (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김혜란 (연구원)
| 보험동향 | 최 원 (수석연구원)
김혜란 (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99호

[2021 가을호]

KiRi 보험연구원

목　　차

Ⅰ. 경영환경

1. 경제 2
2. 금융 9
3. 자금흐름 13
4. 규제·제도 15

Ⅱ. 보험동향

1. 성장성 18
2. 수익성 41
3. 리스크 50
4. 시장경쟁 57

I 경영환경

■ 2021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소매판매, 투자, 산업생산, 수출 등이 확대되며 전분기에 이어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됨

◦ 2021년 2/4분기 세계 무역과 산업 생산은 큰 폭 증가하였고, 경기선행지수는 4분기 연속 상승 이후 100을 상회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함

■ 2021년 2/4분기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6.0%)을 기록하였고, 경기 회복흐름을 고려할 때 2021년 연간 4.0% 수준의 경제성장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2/4분기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상승세가 확대되었고, 수출입 증가율 또한 2020년 2/4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2021년 2/4분기에 큰 폭으로 상승함

◦ 한국은행과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4.0%, 4.1%로 전망함

■ 한국은행은 백신 접종 확대 및 경제활동 제약 완화에 따른 성장세 회복이 이어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함

◦ 코로나19 불확실성은 여전하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수출 호조 및 설비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및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2.04%, 2.49%로 2018년 이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있음

■ 2021년 2/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국내외 주식, 보험 및 연금 거래금액이 모두 전기 대비 감소하였음

◦ 2021년 2/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6.1%로 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직전 4년(2017~2020년) 거래 비율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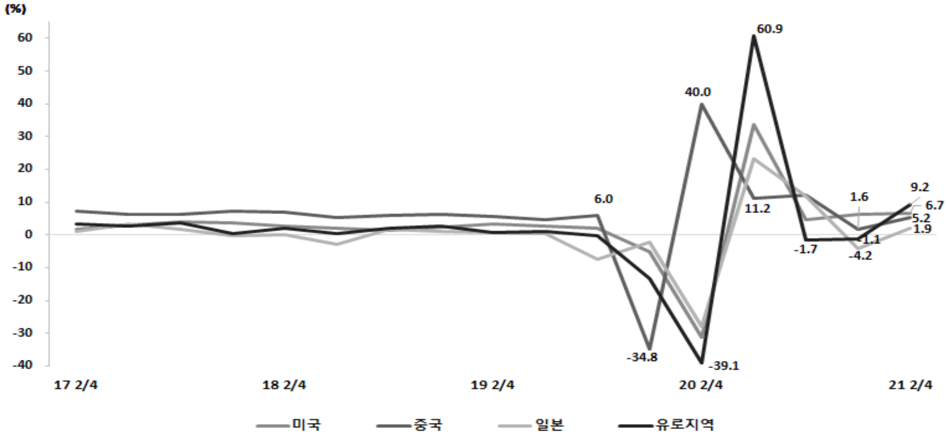
1. 경제

가. 세계경제

○ 2021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전분기에 이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됨

- 미국 GDP 성장률(6.7%)은 소비지출, 비거주용 설비 및 지식생산물 투자, 수출 증가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0.4%p 상승함[1)]
- 중국 경제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을 중심으로 성장세(5.2%)를 이어감[2)]
- 일본 경제는 서비스업 소매판매 약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투자 및 산업생산 증가로 전분기 대비 6.1%p 상승한 1.9% 성장함[3)]
- 유로지역은 2021년 2/4분기에 가계 소비지출, 정부지출, 수출 등의 확대로 9.2% 성장하며 회복세가 크게 확대됨[4)]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1. 9); 중국 국가통계국(2021. 9); 일본 내각부(2021. 9); Eurostat(2021. 10)

---

1)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ews Release(2021. 9),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Estimate), GDP by Industry, and Corporate Profits (Revised)”, 2nd Quarter 2021

2) CNBC(2021. 7), “China's GDP grew 7.9% in the second quarter; retail sales beat expect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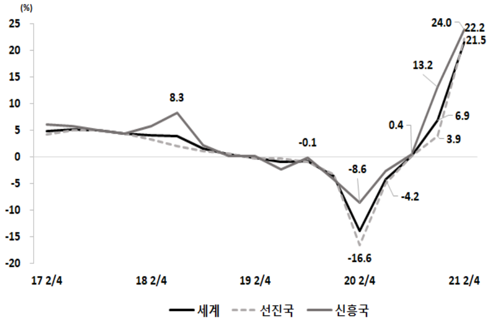
3) Nikkei Asia(2021. 9), “Japan GDP growth in April – June upgraded to annualized 1.9%”

4) Eurostat(2021. 9),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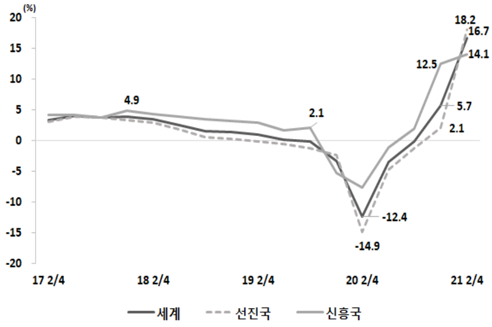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21.5%, 16.7%로 전분기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규모는 각각 22.2%, 24.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선진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하였고, 신흥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4.1% 확대됨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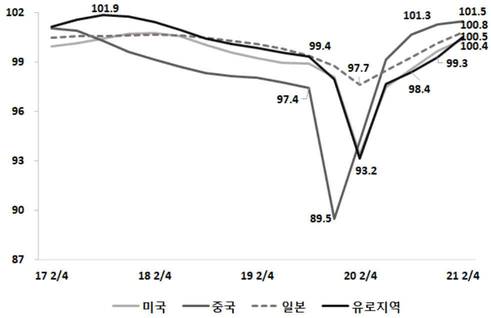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21. 8)

○ 2021년 2/4분기 세계 경기선행지수[5]는 100.5를 기록하며 4분기 연속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함

- G7의 경기선행지수는 100.5로 전분기보다 0.8p 상승하였고, 미국과 일본, 중국, 유로지역은 전분기보다 각각 0.7p, 0.7p, 0.2p, 1.2p 상승한 100.4, 100.8, 101.5, 100.5를 기록함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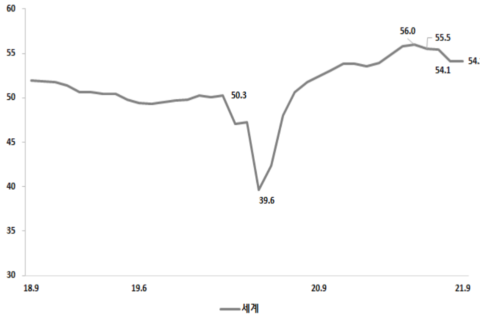
주: 1)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2) 기타 6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자료: OECD

5)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 하강을 의미함

○ 2021년 9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6]는 54.1로 지난 5월 최고치(56.0)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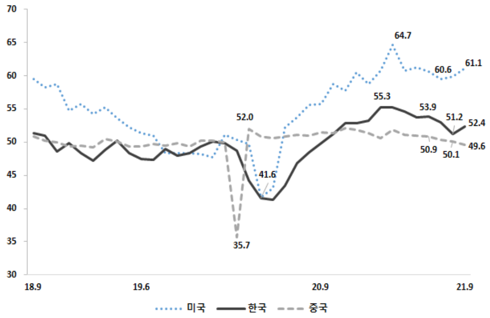
- 2021년 9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61.1로 지난 3월 정점에 도달한 후 60선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각각 52.4, 49.6임

〈그림 6〉 세계 제조업 PMI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7〉 주요국 제조업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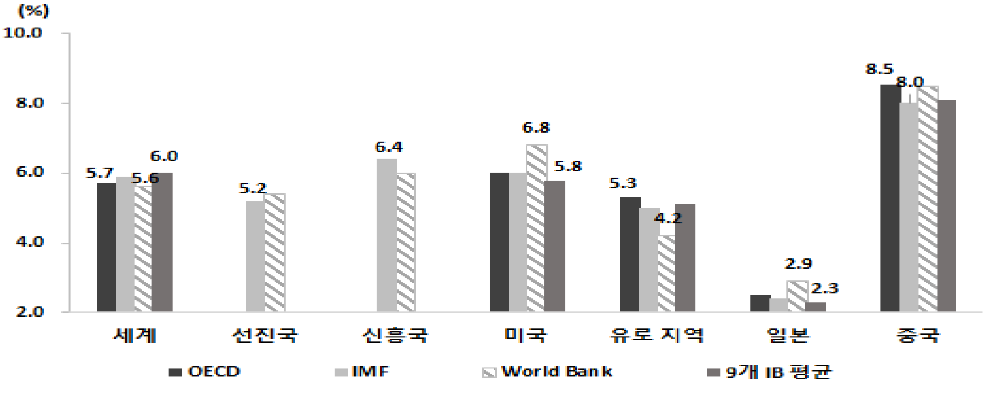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소비 둔화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소폭 낮추어 전망함

- OECD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1년 5월 5.8%에서 2021년 9월 5.7%로 0.1%p 하향 조정함[7]

〈그림 8〉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주: 9개 IB는 Barclays, BoA-ML, Citi, BnP Paribas,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Societe Generale, UBS임
자료: IMF(2021. 10); OECD(2021. 9); World Bank(2021. 6); 9개 IB 평균(202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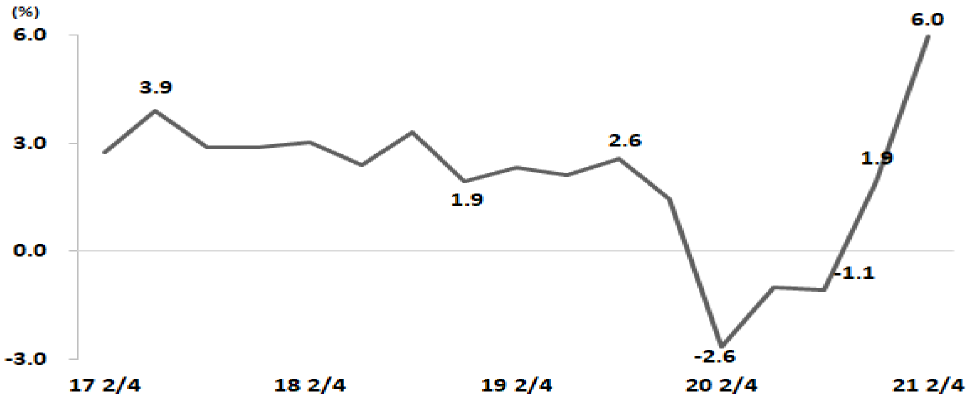
6)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됨
7) OECD(2021. 9),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Keeping the Recovery on Track*

나. 국내경제

○ 2021년 2/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하며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며 상승세가 지속됨
  -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였으나 2021년 1/4분기 대비 증가세가 둔화됨
  - 소비자심리지수는 105.9로 전분기 대비 8.1p 상승하였으며 4분기 연속 상승세를 지속함
-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부진이 계속됨8)
  - 설비투자는 4월과 6월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였고,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 4분기 연속 감소함
  - 기계수주는 4월 민간 수주 증가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하였고,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함
-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각각 22.4%, 13.7%로, 2020년 2/4분기 대폭 하락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2021년 2/4분기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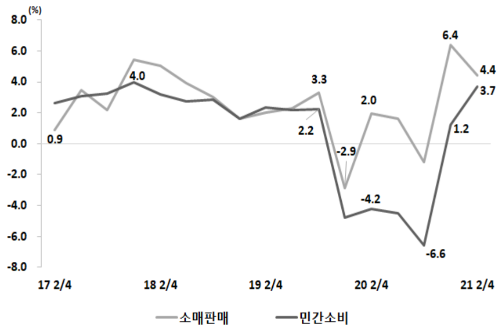
〈그림 9〉 국내 경제성장률



주: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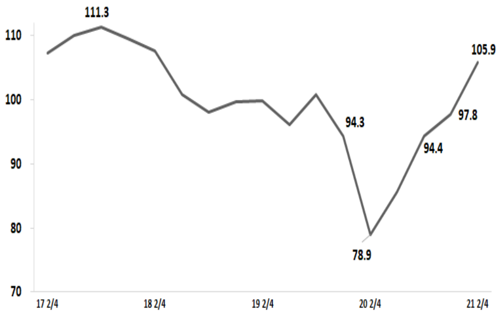
8) 통계청 보도자료(2021. 5), "2021년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1. 6), "2021년 5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1. 7),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0〉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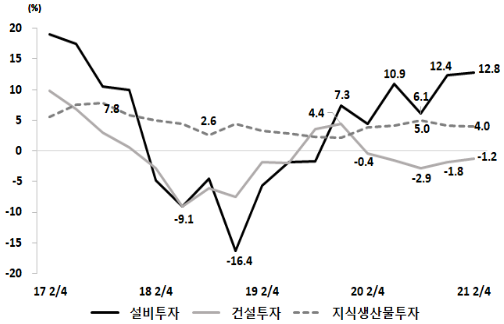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1〉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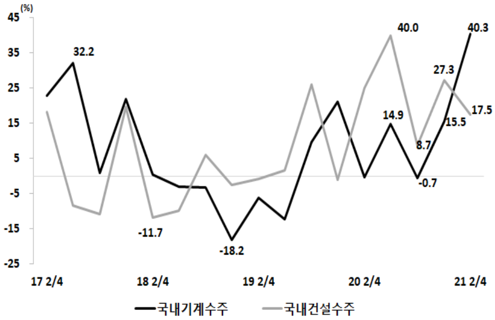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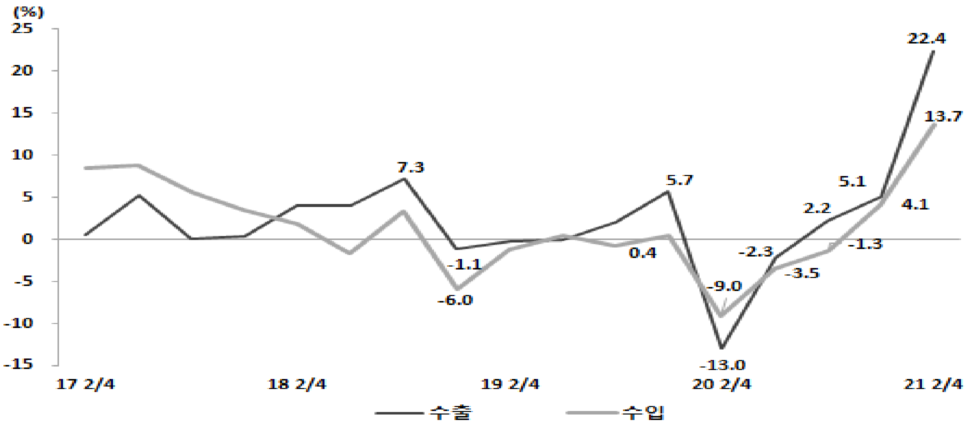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3〉 기계수주, 건설수주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그림 14〉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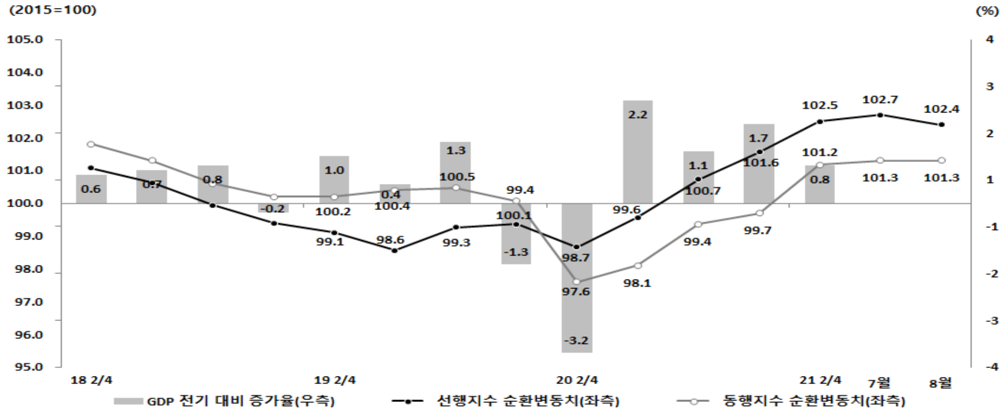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2/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102.5, 101.2로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21년 8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2021년 2/4분기와 비교했을 때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3으로 상승세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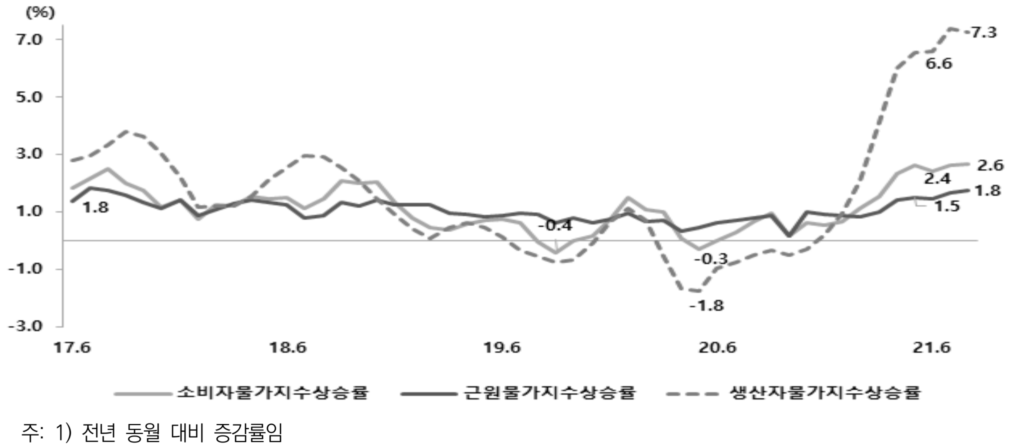
〈그림 15〉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



주: 2021년 4월과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21년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로 6월 2.4%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었고,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강세 등이 영향을 미침[9]

〈그림 16〉 물가상승률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9) 기획재정부(2021. 8; 2021. 9), 「최근경제동향」

○ 국내외 주요 기관은 수출 성장과 투자 확대, 경기부양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경제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과 KDI는 국내경제가 백신접종 확대와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예상하며,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함
- 주요 해외투자은행[10]은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최저 3.6%(Nomura)에서 최고 4.8%(UBS), 평균 4.1%로 전망함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F)[1]		2022(F)[1]	
			한국은행[2]	KDI[3]	한국은행[2]	KDI[3]
실질 GDP	2.0	-0.9	4.0	4.0	3.0	3.0
민간소비	1.7	-5.0	2.8	3.5	3.4	3.9
설비투자	-7.5	7.1	8.8	9.1	2.1	3.2
건설투자	-2.5	-0.4	0.9	-0.5	2.9	2.4
지식생산물투자	3.0	4.0	4.4	4.0	3.8	3.3
상품수출	0.5	-0.5	8.9	8.5	2.7	2.6
상품수입	-0.8	-0.1	9.5	10.3	3.0	3.3
실업률	3.8	4.0	3.9	3.7	3.8	3.7
소비자물가	0.4	0.5	2.1	2.3	1.5	1.7
경상수지	600	753	820	912	700	651
상품수지	769	819	710	786	730	6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69	-67	110	126	-30	-39

주: 1)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1. 8),『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1. 11),『KDI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10) 9개 IB(Barclays, BoA-ML, Citi, Goldman Sachs, J.P.Morgan, Nomura, Credit Suisse, HSBC, UBS), 2021년 9월 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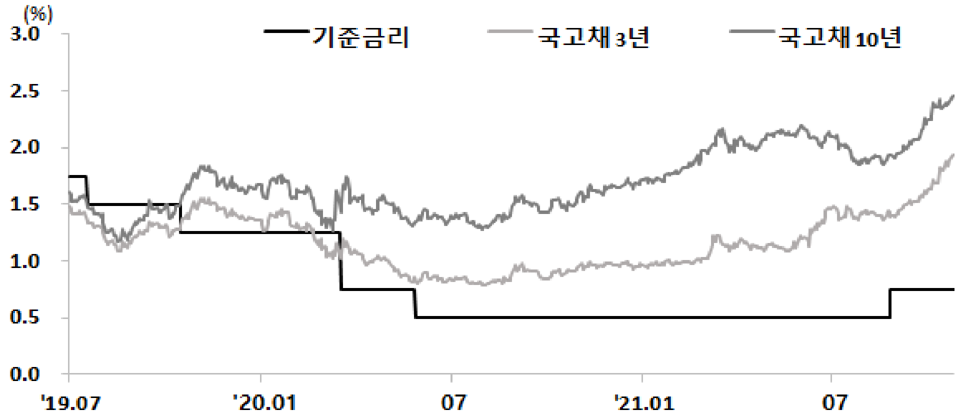
2. 금융

가. 금리

○ 한국은행은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에 따른 성장세 회복이 이어짐에 따라 8월 26일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상향조정하였고,[11]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임

- 한국은행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수출 호조 및 설비투자의 견조한 흐름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함[12]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미 연준의 조기 긴축 계획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및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 등에 영향을 받으며 빠르게 상승함
  - 10월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2.04%, 2.49%를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그림 17〉 기준금리, 장단기 국고채 금리



자료: Bloomberg

○ 장단기 스프레드와 신용스프레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확대됨

-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인플레이션 기대에 따른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및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8월 45.0bp에서 10월 68.1bp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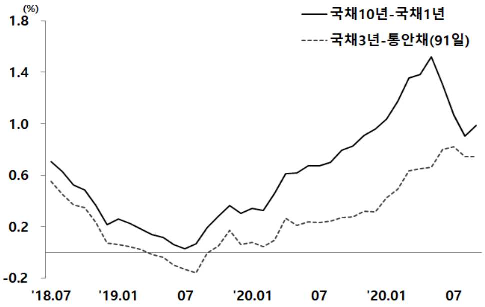
---

11) 한국은행(2021. 8. 26), 『통화정책방향』

12) 한국은행(2021. 9), 『통화신용정책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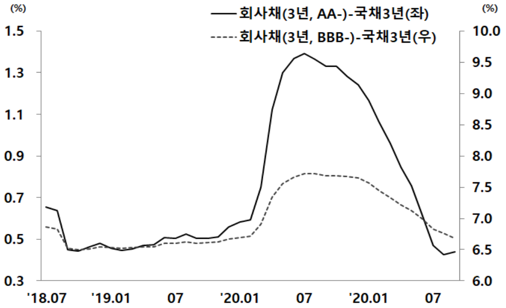
• 신용스프레드(회사채 AA-, 국고채 3년물)는 국고채 금리 상승 및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리 변동성 확대, 기관들의 평가손실 확대 등으로 신용거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8월 42.7bp에서 10월 46.0bp로 확대됨

〈그림 18〉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19〉 신용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 미국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큰 폭 상승함

•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5%대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전망 등으로 1.70%까지 상승함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1년 4/4분기 한국 3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를 지난 8월 전망치에 비해 상향 조정한 반면, 한국과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하향 조정함

• 2021년 4/4분기 한국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56%로 지난 8월 전망치에 비해 0.13%p 상향 조정하였고, 한국과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2.16%, 1.68%로 지난 전망치에 비해 0.01%p, 0.12%p 하향 조정함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3년) 금리		
'21. 4Q	'22. 1Q	2Q	'21. 4Q	'22. 1Q	2Q	'21. 4Q	'22. 1Q	2Q
1.68	1.80	1.90	2.16	2.22	2.25	1.56	1.63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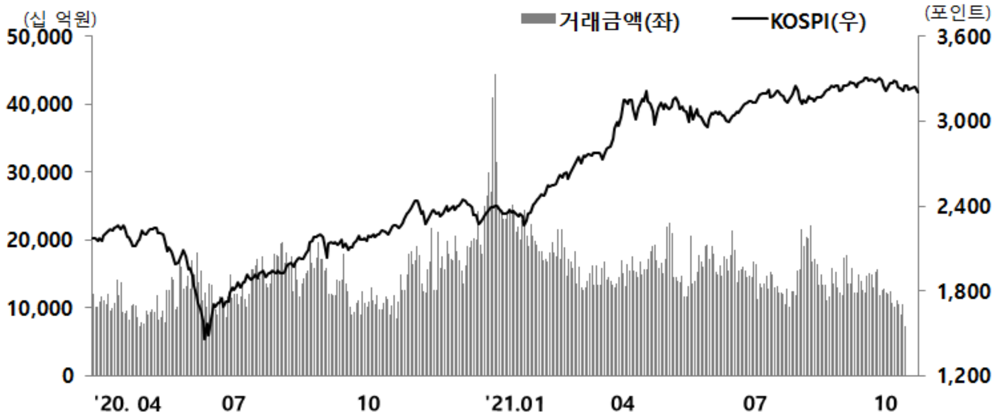
주: 2021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0월 말 기준임
자료: Bloomberg

나. 주가 및 환율

○ 코스피(KOSPI) 지수는 중국 헝다그룹 사태[13]와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하락요인과 위드코로나에 대한 기대 등의 상승요인이 혼재하며 3,0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함

- 9월 코스피 지수는 중국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와 미국 국채금리 급등 및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주요국 주가와 함께 하락세[14]를 보이며, 3,069포인트에서 마감함
- 10월에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우려로 코스피 지수는 3,000선에서 박스권이 지속됨

〈그림 20〉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긴축 우려, 중국 헝다그룹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상승세를 보임

- 9월 원/달러 환율은 선박수주 호조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과 미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종료 및 긴축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1,180원대로 상승함
- 이후 중국 헝다그룹 관련 불확실성,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15]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며, 10월 원/달러 환율은 1,199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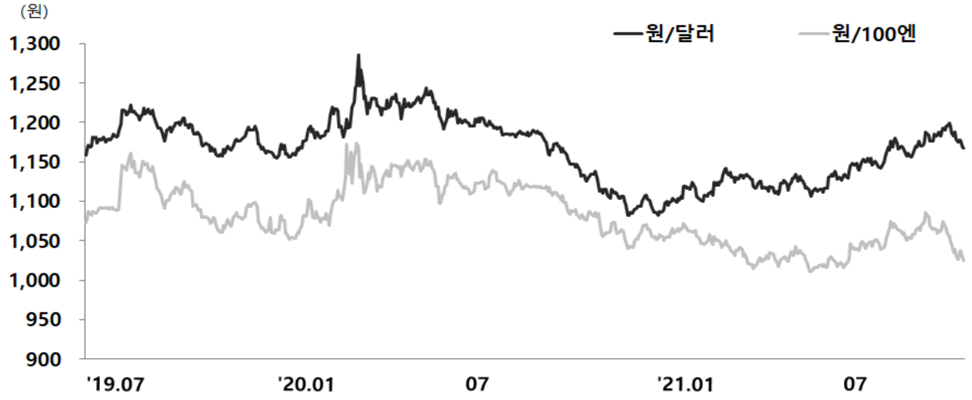
○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 상승 및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을 받으며 하락세로 전환함

---

13) 9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디폴트 위기에 몰리면서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우려되고 있음
14)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 10. 13), “2021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
15) KDB(2021. 10. 5),「국제금융시장 9월 동향 및 10월 전망」,『Weekly KDB Report』

- 9월 원/엔 환율은 중국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어 소폭 상승세를 보임
- 한편, 10월에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국제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100엔당 1,120원대를 기록함

〈그림 21〉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1년 4/4분기 환율이 전분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 헝다그룹 관련 위험 회피 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평균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21. 3Q	'21. 4Q	'21. 3Q	'21. 4Q	'21. 3Q	'21. 4Q
Wells Fargo	1,184	1,180	112	115	1.16	1.15
Mizuho Bank		1,190		113		1.15
PNC Financial		1,170		111		1.17
ING Financial Markets		1,180		112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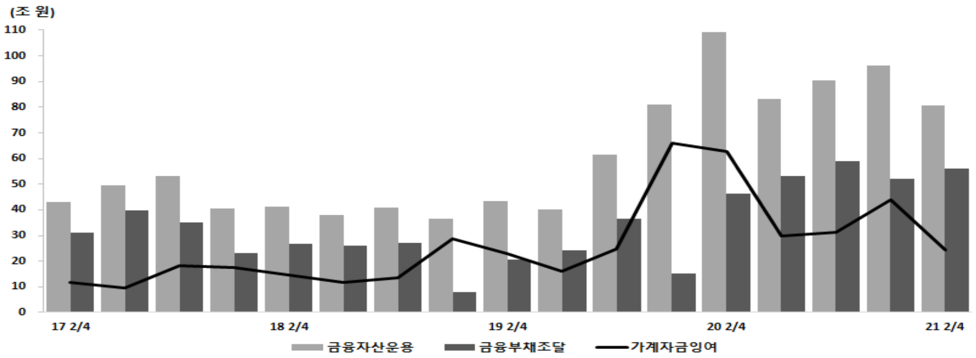
주: 2021년 4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0월 말 기준임
자료: Bloomberg

3. 자금흐름

○ 2021년 2/4분기 가계부문[16]의 자금잉여[17]는 24.5조 원으로 전기 대비 19.5조 원 감소하였음

• 2021년 2/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운용은 80.5조 원이었고, 금융부채조달은 56.0조 원으로 2020년 4/4분기(59.1조 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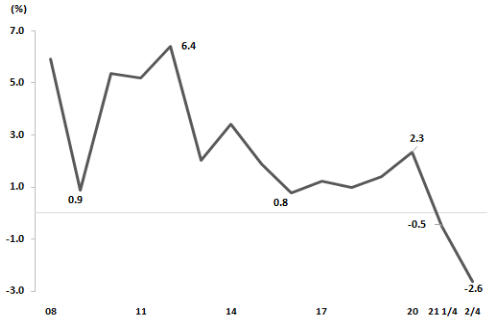
〈그림 22〉 가계자금잉여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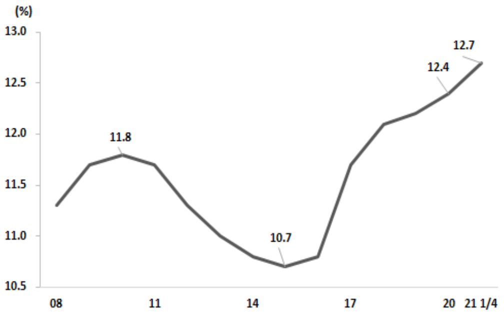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하였고, 2021년 1/4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7%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감

〈그림 23〉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2020년 이후 증가율은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에서 '2인 이상 가구 비농림어가'로 변경, 발표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24〉 DSR



자료: BIS

16)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17)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 2021년 2/4분기 가계부문에서 국내외 주식 거래와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거래금액이 모두 전기 대비 감소하였고, 채권 거래는 전기 대비 증가하였음

- 2021년 2/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6.1%로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직전 4년도 거래 비율과 비교해보았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표 4〉 가계 금융상품 거래

(단위: 조 원, %)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17	105.4	83.3	(46.8)	-11.9	0.0	1.3	-3.6	3.6	178.1
2018	75.3	60.7	(37.8)	0.0	21.8	1.7	0.0	1.2	160.7
2019	130.7	72.0	(39.6)	-17.3	-7.9	2.1	2.0	0.0	181.6
2020	189.9	73.0	(20.1)	10.2	62.2	20.6	-6.6	14.5	363.8
2021 1/4	41.9	13.8	(14.4)	-11.8	36.5	12.5	2.6	0.6	96.1
2021 2/4	36.9	13.0	(16.1)	-5.1	29.2	2.8	1.0	3.3	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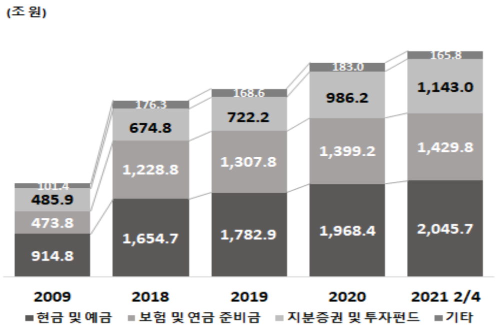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2/4분기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9.9%로 2020년에 비해 0.9%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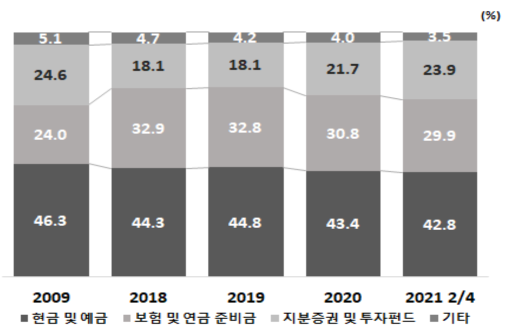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가계 자산 중 현금 및 예금 비중은 42.8%로 2020년 대비 0.6%p 하락하였고,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는 23.9%로 전년도보다 2.2%p 증가함

〈그림 25〉 가계 금융자산 구성(금액)



자료: 한국은행

〈그림 26〉 가계 금융자산 구성(비중)



자료: 한국은행

4. 규제·제도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2021. 9. 30 금융위원회)

- 최근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하고, 상급병실 및 한방 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 함. 또한 부녀자 및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하여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함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9. 9~10. 19)(2021. 9. 9 금융위원회)

-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2021년 5월)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2021년 7월)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함
- 손해사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하였음.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신(新) 보험회계 기준(K-IFRS 제1171호(보험계약)) 시행 준비를 위한 사전공시 모범사례 배포 (2021. 8. 1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 보험회계 기준(K-IFRS 제1117호(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음. 보험회사는 동 사례를 활용하여 재무제표, 홈페이지 등에 신(新) 기준서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사항, 도입준비 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분기별 사전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수치 변동가능성 등을 예고해야 함

○ 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 보험금 누수에 대한 대응책 강구(2021. 7. 29 금융위원회)

-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되어 건강보험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정보를 공유하고,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동등록 취소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함. 또한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보험협회에서는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등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함

○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강화(2021. 7. 28 금융감독원)

-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실손보장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나 보험사의 개별 약관상 배터리에 대한 보상방식이 불분명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일부 보험사만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약관을 개정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상방식을 명확히 하는 한편, 모든 보험회사에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판매하게 함

○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2021. 7. 27 국토교통부)

-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하기로 함. 이에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보험료를 10% 할증하고, 할증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됨

○ 비대면 방식(전화·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2021. 7. 26 금융위원회)

- 전화·통신수단 등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1. 7. 23)하여 계약자가 사전에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됨.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함

Ⅱ 보험동향

■ 2021년 2/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1,332조 원임

◦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980조 원이었으며, 손해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352조 원임

◦ 보험산업 자산 성장에는 책임준비금 확대, 이익잉여금 증가, 후순위채 증가 등이 기여함

■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실제사업비)은 2021년 2/4분기 1.1조 원 흑자를 나타냄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27.7조 원임

◦ 보험금 지급은 증가하였으나 사업비가 감소하면서 보험영업현금흐름이 흑자를 기록함

■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실제사업비)은 2021년 2/4분기 0.49조 원 흑자를 기록함

◦ 2021년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25.0조 원임

◦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어 보험영업현금흐름이 2분기 연속 흑자를 나타냄

■ 2021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함

◦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저축보험 판매 증가, 금리 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 배당수익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 증가한 3.1조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보험료 수입 증가, 손해율 개선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6% 증가한 2.5조 원을 나타냄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됨

◦ 2021년 2/4분기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은 중소형사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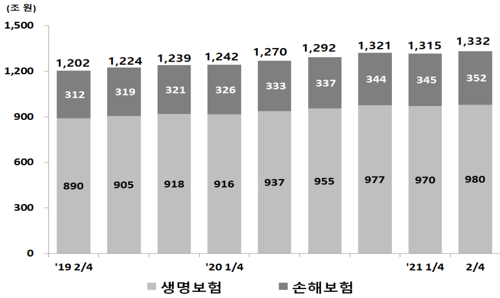
1. 성장성[1)]

가. 자산

○ 2021년 2/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1,332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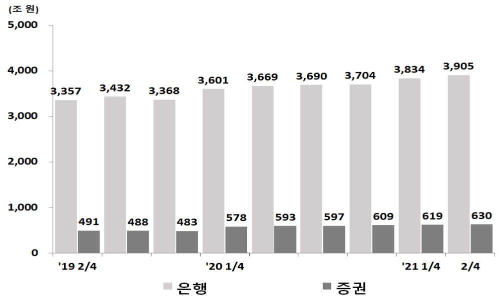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980조 원이며, 손해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352조 원임
- 은행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3,905조 원이며, 증권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630조 원임

〈그림 1〉 보험산업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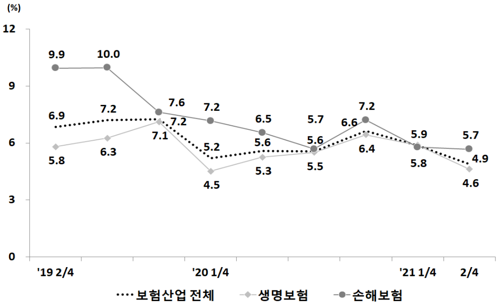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 은행 및 증권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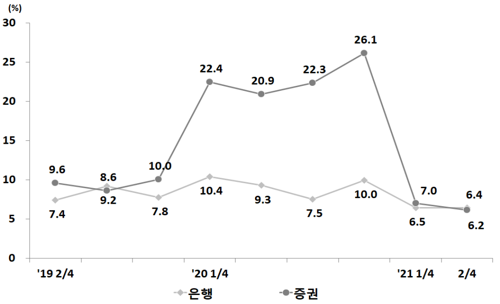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3〉 보험산업 총자산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 은행 및 증권 총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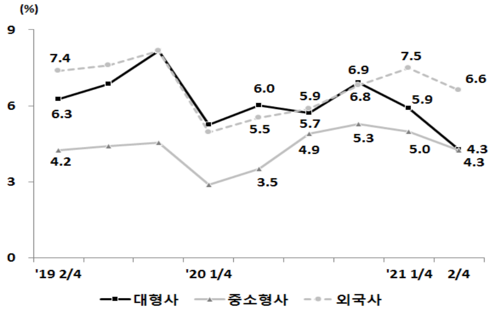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1)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산성장률을 제시하며, 본장에서는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보험산업 자산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각 요소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함.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험영업 중심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투자영업) 부문을 간과하고 현금 유출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외국사의 전년 동기 대비 자산 증가율이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냄[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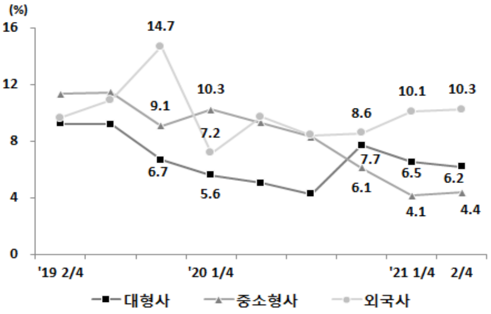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2021년 2/4분기 외국사의 전년 동기 대비 자산 증가율은 6.6%로 가장 높았으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산 증가율은 모두 4.3%였음
- 손해보험의 경우 외국사의 전년 동기 대비 자산 증가율은 10.3%였으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산 증가율은 각각 6.2%, 4.4%임

〈그림 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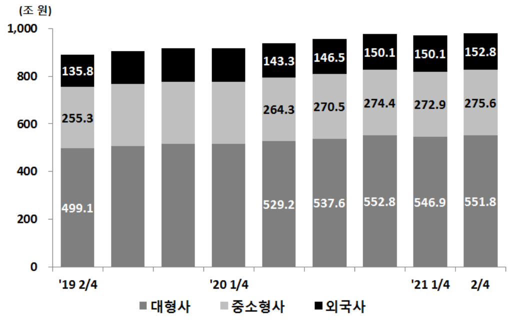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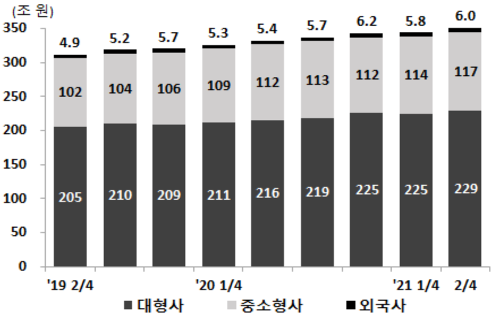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주: 생명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사이며, 중소형사는 12개사, 외국사는 9개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주: 손해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이며, 중소형사는 10개사, 외국사는 17개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산업은 총 24개사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3개 회사, 중소형사 12개 회사와 외국사 9개 회사를 포함함(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

3) 손해보험산업은 총 31개사로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4개 회사, 중소형사 10개 회사와 외국사 17개 회사를 포함함(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

나. 생명보험 성장 요인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10.3조 원 증가한 980.2조 원임

- 책임준비금은 수입보험료 확대 등으로 총자산 증가에 6.2조 원 기여하였으며, 특별계정부채도 자산 성장에 3.3조 원 기여함
- 또한, 후순위채 및 이익잉여금 확대도 자산 성장에 각각 0.5조 원, 0.4조 원 기여함

〈그림 9〉 생명보험산업 자산 변화

(단위: 조 원)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참고: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 〉

○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 + 기타(LAT 추가적립 등)'로 나타낼 수 있으나,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이 드러나지 않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를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으로 추정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

- 손익계산서로부터 '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책임준비금전입액'이므로 '책임준비금 전입액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인데,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책임준비금 증감
  = 책임준비금전입액 + 기타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 + 기타
  =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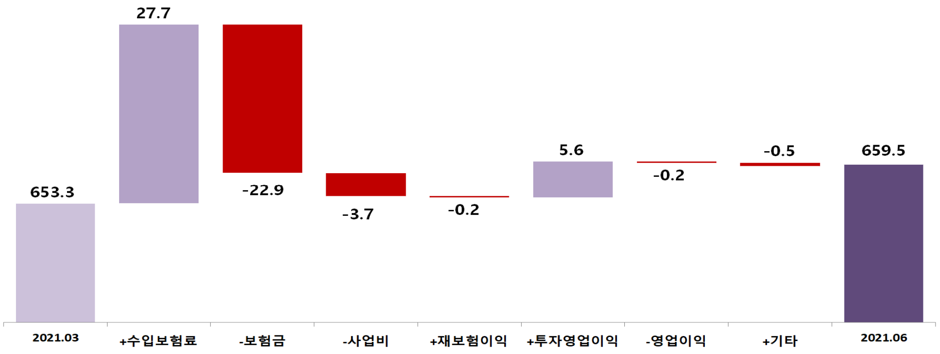
1)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 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은 전년 동기 대비 6.2조 원 증가한 659.5조 원임

•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사업비4)를 차감한 금액은 1.1조 원 흑자를 나타냈으나, 투자영업이익은 5.6조 원을 나타냄

〈그림 10〉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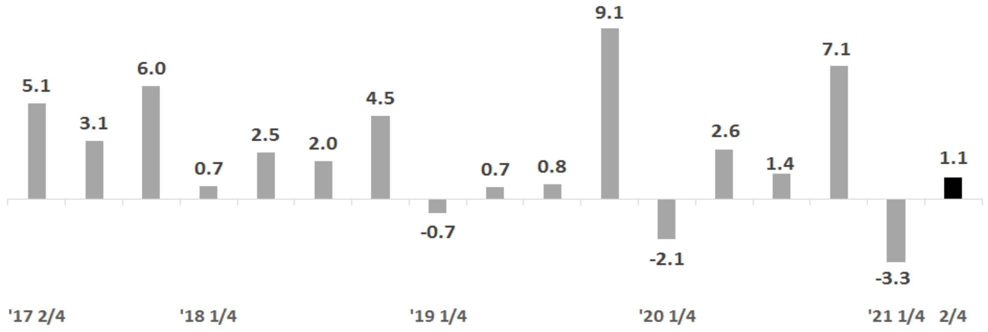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2/4분기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실제사업비)은 저축보험 수입보험료 증가 및 사업비 감소 등으로 1.1조 원 흑자를 나타냄

〈그림 11〉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단위: 조 원)



주: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이연전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여기서 사업비는 순사업비로 이연전사업비와 신계약비상각비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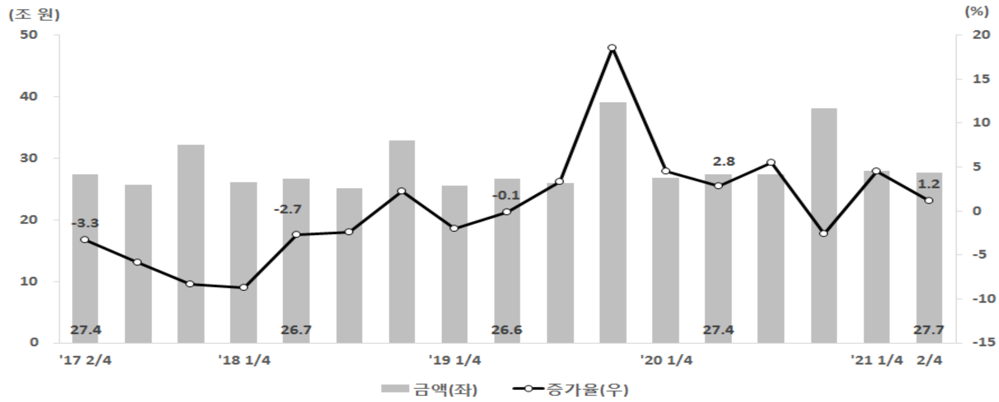
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27.7조 원을 나타냄

○ 종목별로 보면,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하였으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감소함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계속보험료 증가 효과와 변액종신 및 건강보험[5] 판매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11.7조 원을 나타냄
  -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신규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6.7조 원을 나타냄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2.8조 원이었으며, 이는 금리 경쟁력 확대 등으로 인한 일시납 저축보험 판매 확대와 투자 수요 확대에 따른 변액저축성보험 증가가 원인임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3.0조 원이며,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0.2조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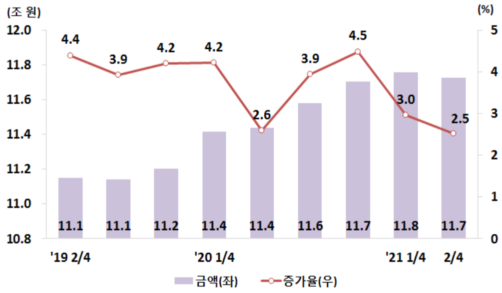
〈그림 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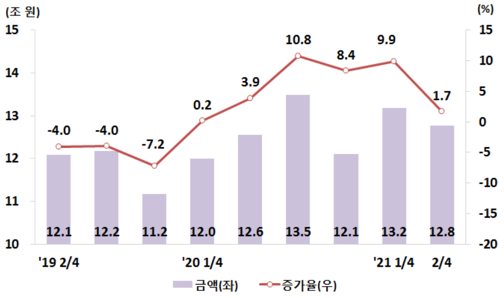
5) 종신보험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건강 및 질병과 관련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함

〈그림 1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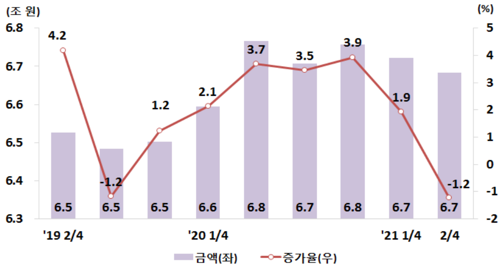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4〉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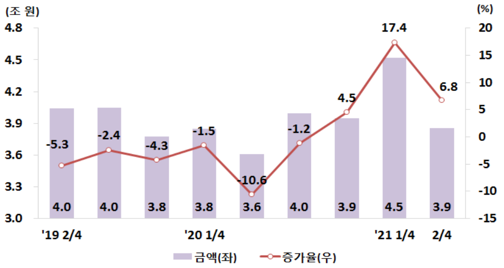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5〉 종신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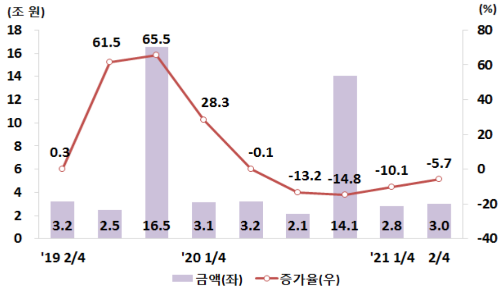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6〉 변액 저축성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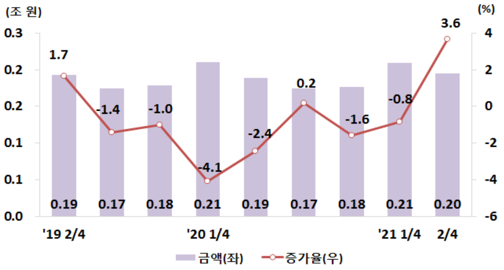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7〉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8〉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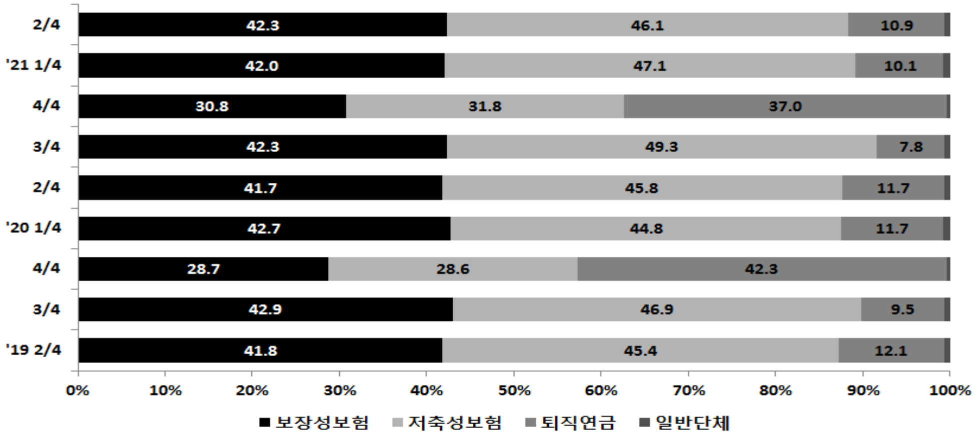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중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됨

- 보장성보험 비중은 변액종신 및 건강보험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p 확대된 42.3%를 기록함
- 저축성보험 비중은 저축보험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p 확대된 46.1%를 나타냄
- 퇴직연금 비중은 수입보험료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축소된 10.9%를 나타냄

〈그림 19〉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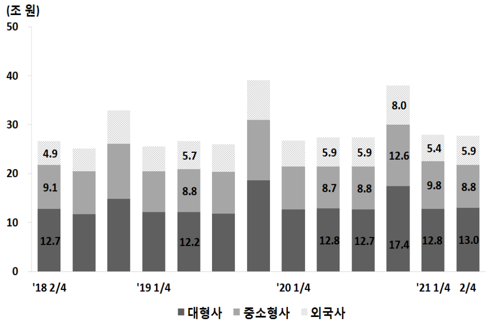


주: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21년 2/4분기 중소형사의 전년 동기 대비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1.7%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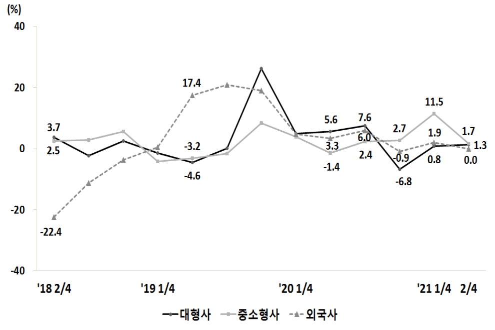
- 또한, 대형사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1.3%였으며, 외국사의 증가율은 0%로 매우 낮았음

〈그림 20〉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1〉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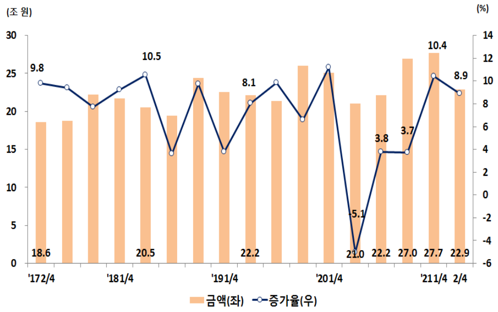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생명보험 보험금 및 사업비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함

- 지급보험금은 환급금과 퇴직 보험금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사업비는 대면채널 신규 판매 위축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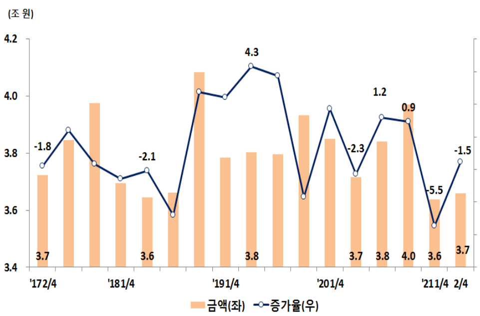
〈그림 22〉 보험금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3〉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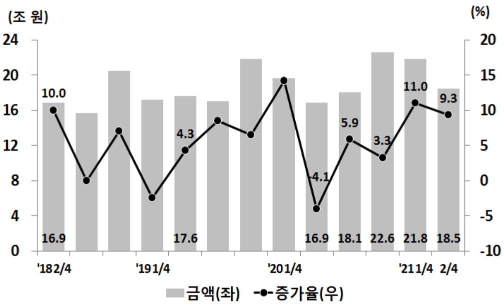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 보험금을 종목별로 보면, 환급금, 사망 및 상해 보험금, 만기 및 퇴직 보험금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최근 보험금의 증가는 해지 증가, 보험금 청구 확대, 퇴직연금 수령 확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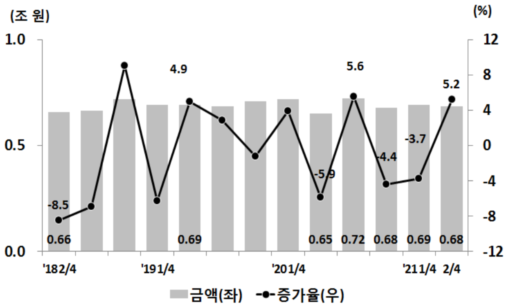
〈그림 24〉 환급금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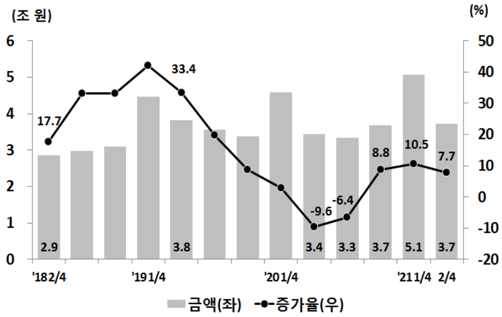
〈그림 25〉 사망 및 상해 보험금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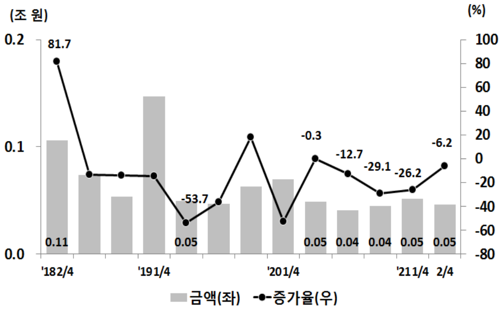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6〉 만기 및 퇴직 보험금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7〉 배당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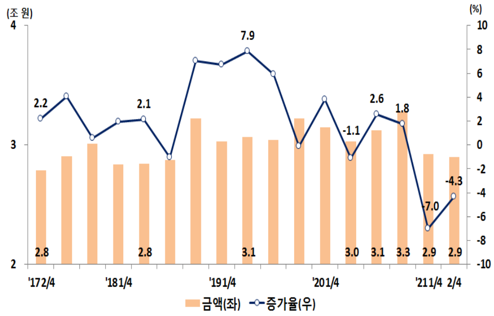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고,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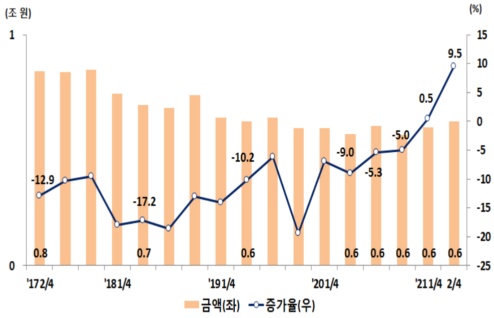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일반종신보험 신규 판매 둔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함
-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저축보험 신규 판매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함

〈그림 28〉 보장성보험 사업비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9〉 저축성보험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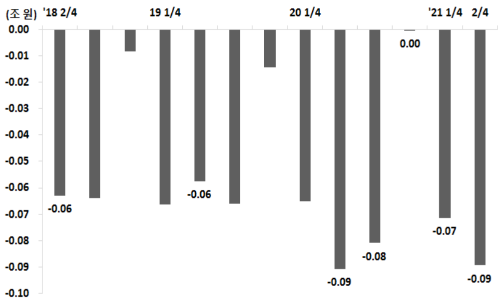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재보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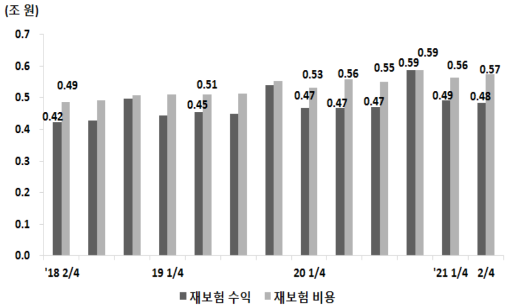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의 재보험 이익은 0.09조 원 적자를 나타냈으며, 재보험 수익과 재보험 비용은 각각 0.48조 원과 0.57조 원임

〈그림 30〉 생명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1〉 생명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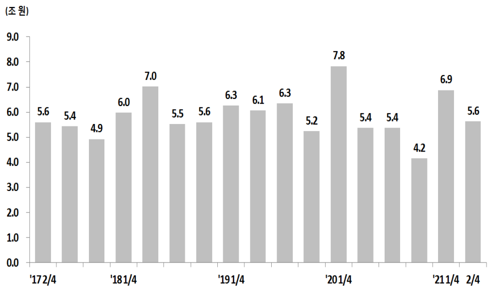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의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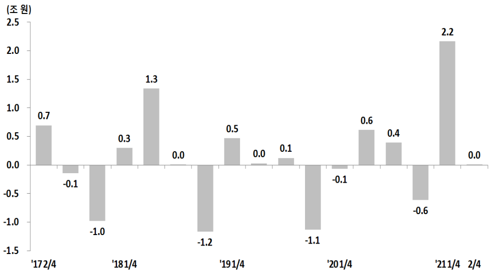
- 투자영업이익은 5.6조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고금리 채권 매각의 영향으로 이자수익은 감소함
- 영업이익은 금리 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 등으로 소폭 흑자를 나타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0.6조 원 감소함

〈그림 32〉 투자영업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3〉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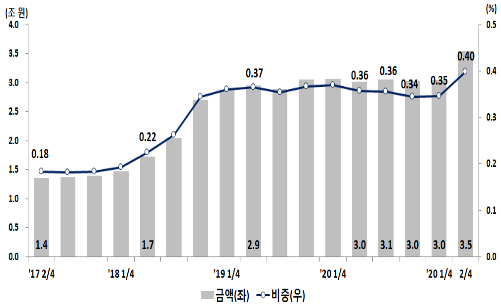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 후순위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으나 기타부채[6] 규모는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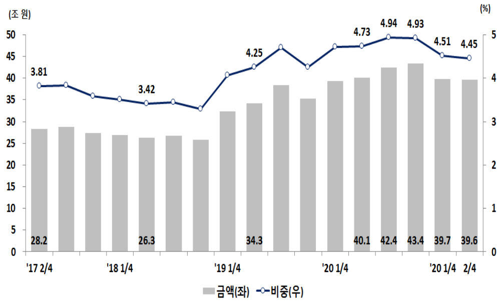
- 후순위채 규모는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7]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조 원 확대된 3.5조 원을 나타냄
- 기타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0.5조 원 감소한 39.6조 원을 기록함

〈그림 34〉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5〉 기타부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생명보험 자본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 총자본은 금리 상승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89.7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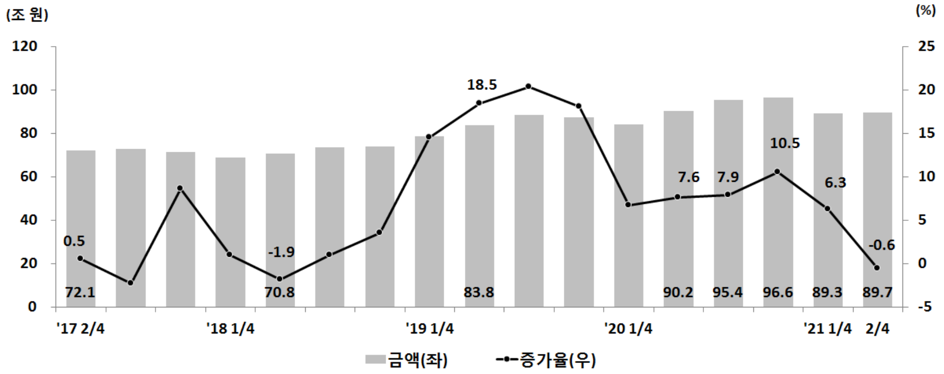
- 그룹별로 보면, 외국사의 총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였으나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총자본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 2.4% 감소함

---

6) 2021년 2/4분기 미래에셋생명보험, KB생명보험, DGB생명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은 각각 3,000억 원, 1,300억 원, 500억 원, 545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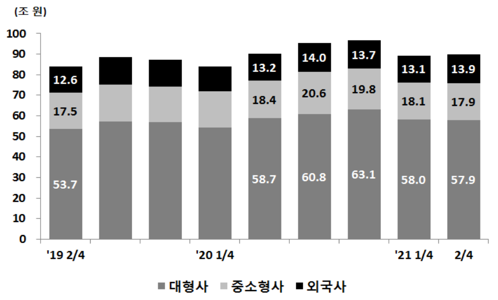
7)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

〈그림 36〉 생명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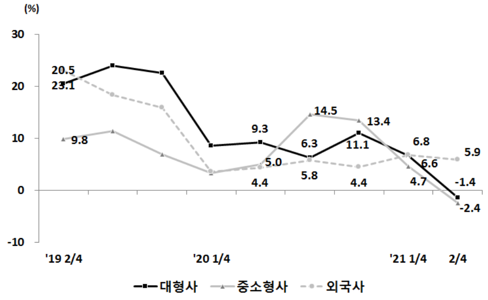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본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본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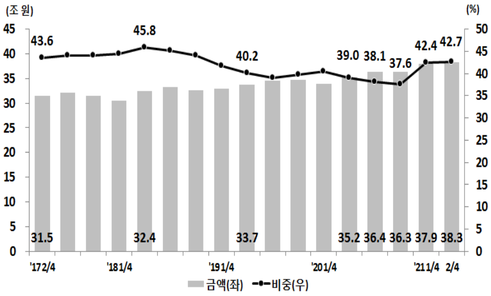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의 이익잉여금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된 반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비중은 축소됨

- 이익잉여금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p 확대된 42.7%를 나타냄
-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비중은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p 하락한 34.7%를 기록함
- 신종자본증권 비중은 4.7%를 나타냈으며, 2020년 상반기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8]으로 비중이 확대된 바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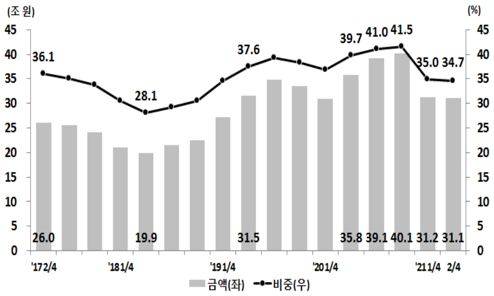
8) 2020년 4월 한화생명은 30년 만기 5,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

〈그림 39〉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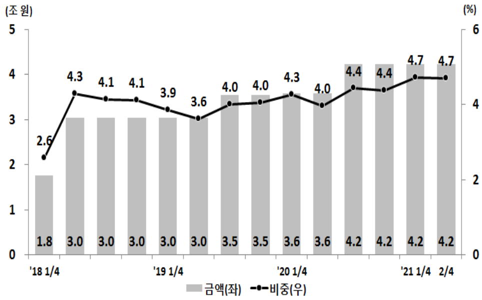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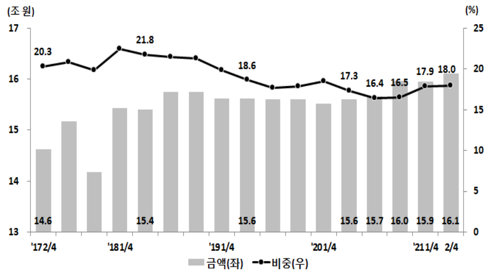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1〉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2〉 기타자본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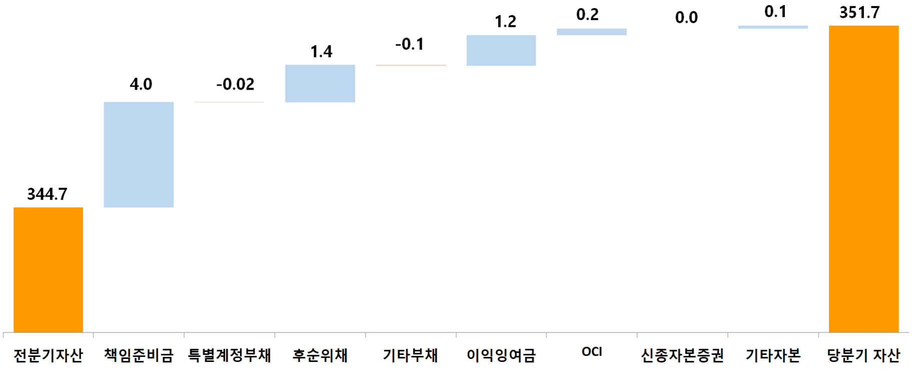
다. 손해보험 성장 요인

○ 2021년 2/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7.0조 원 증가하였으며, 책임준비금, 후순위채, 이익잉여금 증가가 자산 성장에 크게 기여함

- 원수보험료 확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는 총자산 성장에 4.0조 원 기여함
-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으로 인한 후순위채 증가가 자산 성장에 1.4조 원 기여함
-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이익잉여금 확대도 자산 성장에 1.2조 원 기여함

〈그림 43〉 손해보험산업 자산 변화

(단위: 조 원)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참고: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 〉

○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 + 기타(LAT 추가 적립 등)'로 나타낼 수 있으나,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이 드러나지 않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을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으로 추정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

- 손익계산서로부터 '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책임준비금전입액'이므로 '책임준비금 전입액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인데,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책임준비금 증감
  = 책임준비금전입액 + 기타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 + 기타
  =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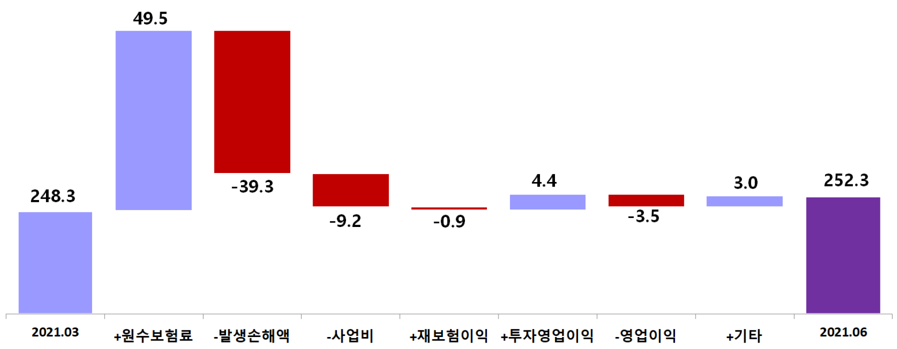
1)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 2021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책임준비금은 전분기 대비 4.0조 원 증가함

-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사업비[9]를 차감한 금액은 1.0조 원 흑자를 나타냄
- 투자영업이익과 기타(LAT 추가 적립 등)가 책임준비금 증가에 각각 4.4조 원, 3.0조 원 기여함

〈그림 44〉 손해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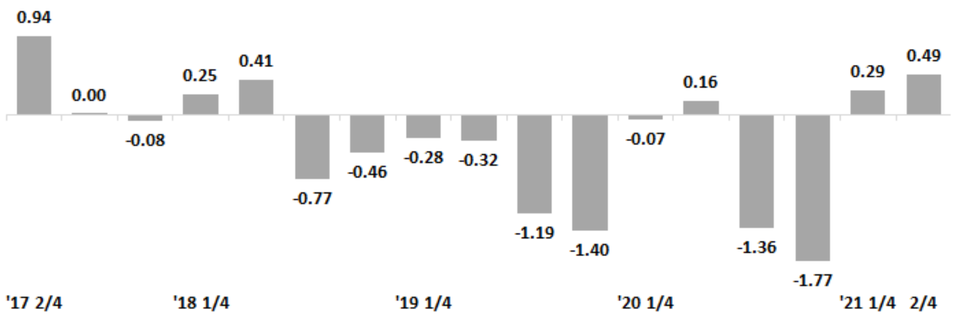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2/4분기 손해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실제사업비)은 원수보험료 확대와 손해율 개선 등으로 0.49조 원 흑자를 기록함

〈그림 45〉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단위: 조 원)



주: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를 차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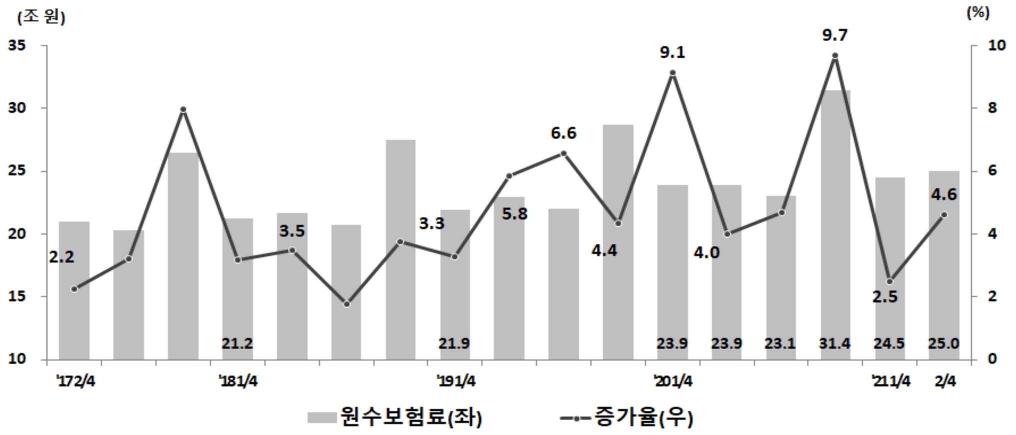
9) 여기서 사업비는 순사업비로 이연전사업비와 신계약비상각비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

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2021년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25.0조 원을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질병, 상해, 운전자보험의 계속보험료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14.6조 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 반영[10)]이 2021년 초 완료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에 그친 5.2조 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타특종보험 등의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3.0조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3.1% 감소한 0.7조 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1.6조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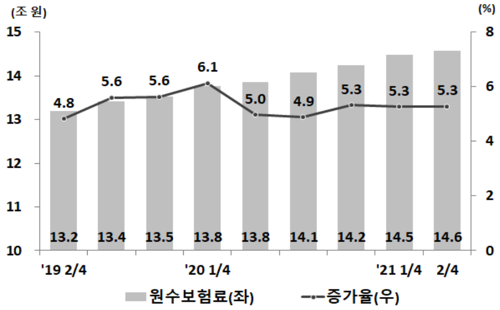
〈그림 46〉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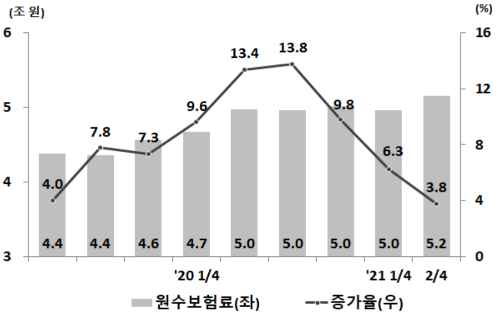
10) 2020년 2월 약 3.5%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졌고, 갱신 시기에 따라 인상률이 순차적으로 적용됨

〈그림 47〉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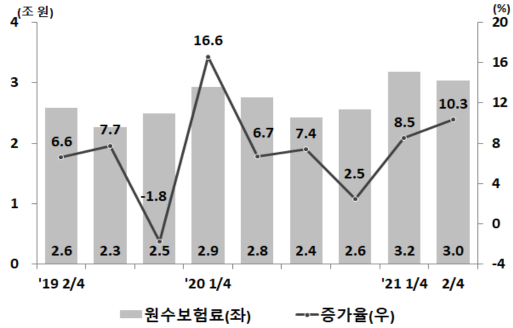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8〉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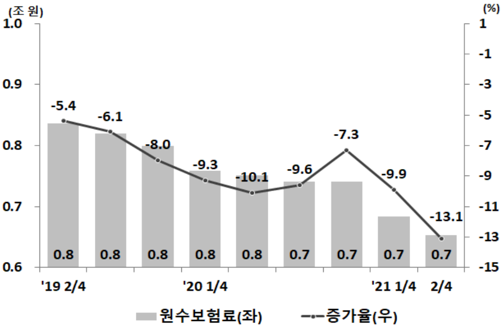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9〉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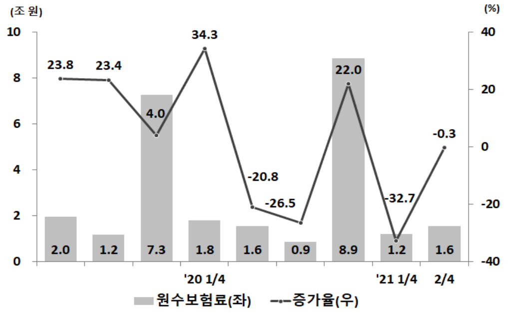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0〉 개인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1〉 퇴직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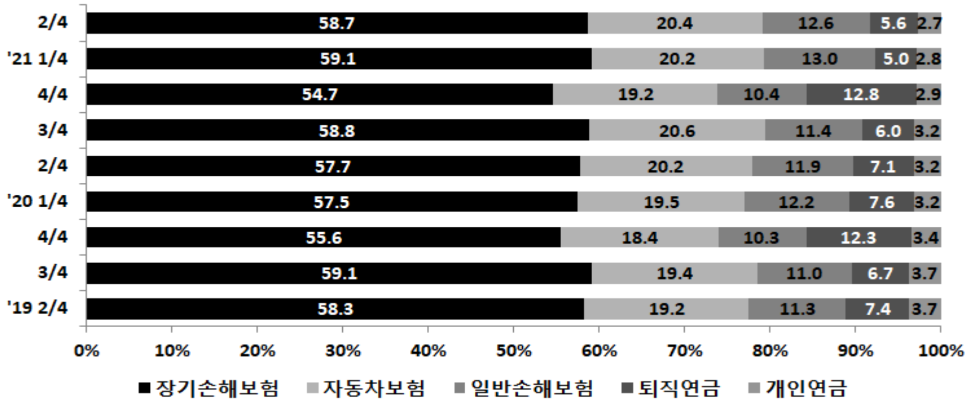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2/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됨

-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계속보험료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p 증가한 58.7%를,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특종보험 고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p 확대된 12.6%를 차지함
- 자동차보험 비중은 보험료 증가세 둔화로 전년 동기 대비 0.2%p 확대에 그친 20.4%를 차지함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비중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p, 0.5%p 축소된 5.6%, 2.7%를 나타냄

〈그림 52〉 원수보험료 종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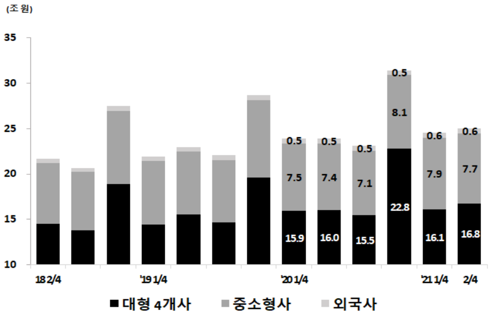


주: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21년 2/4분기 대형사의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4.9%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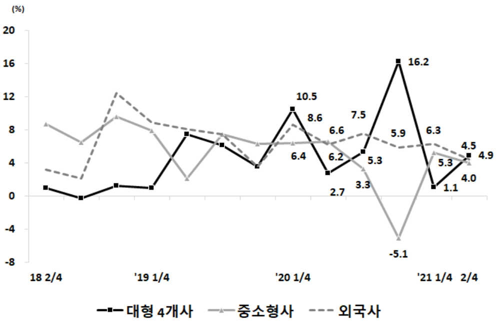
- 외국사의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4.5%, 중소형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4.0%임

〈그림 53〉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4〉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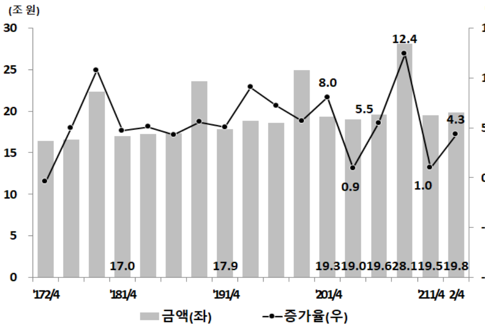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

○ 2021년 2/4분기 손해보험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3%, 3.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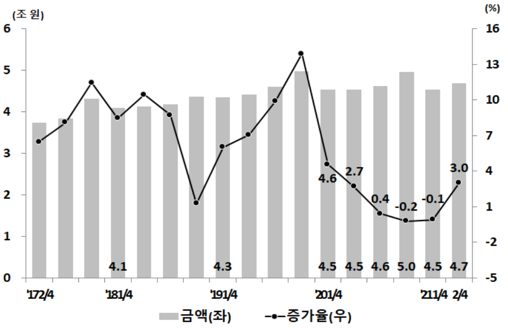
- 발생손해액 증가율은 직전 분기에 기저효과[11] 등으로 둔화되었으나 이번 분기에 상승세를 나타냄
- 사업비는 직전 2분기 판매경쟁 완화와 비대면 채널 확대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번 분기에는 상승함

〈그림 55〉 발생손해액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6〉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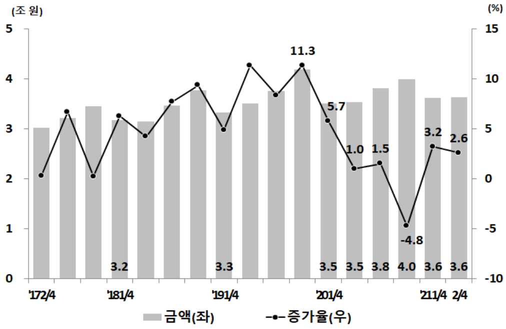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2/4분기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였고, 장기손해보험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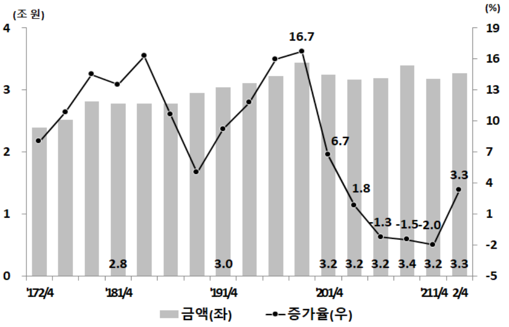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등의 반사이익이 축소되는 조짐이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는 직전 3분기 판매경쟁 완화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번 분기 증가세로 전환됨

〈그림 57〉 자동차 발생손해액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8〉 장기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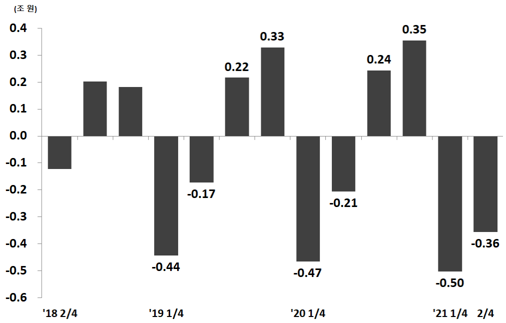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1) 2020년 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이 발생함

다) 재보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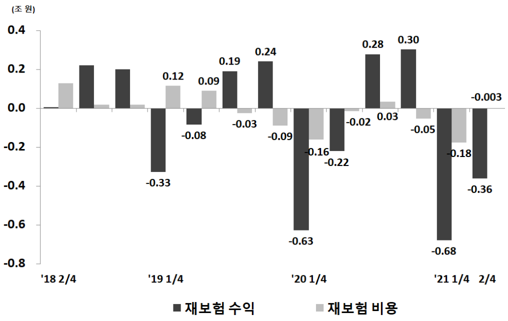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손해보험의 재보험 이익은 재보험 수익이 감소하여 0.36조 원 적자를 기록함

〈그림 59〉 손해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0〉 손해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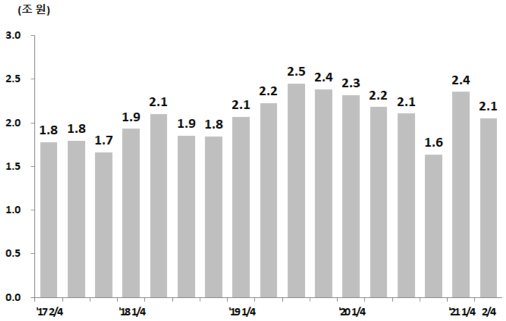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 2021년 2/4분기 손해보험의 투자영업이익은 2.1조 원이었으며, 영업이익은 1.7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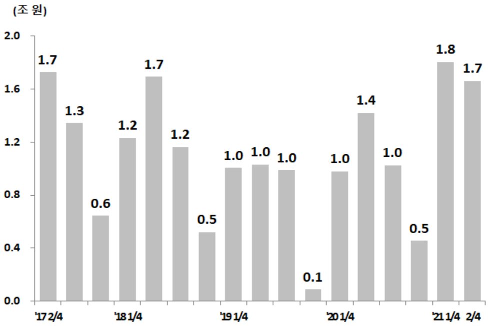
- 투자영업이익은 금리 상승으로 채권의 처분이익이 줄어들어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손해율 개선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조 원 증가함

〈그림 61〉 투자영업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2〉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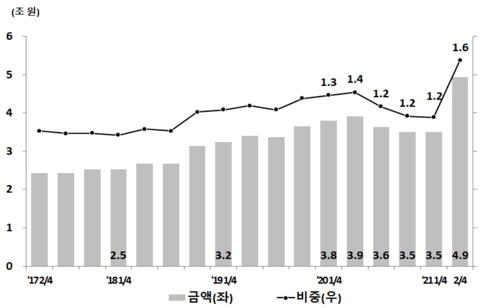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 2021년 2/4분기 손해보험의 총부채 가운데 후순위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으나 기타부채[12]가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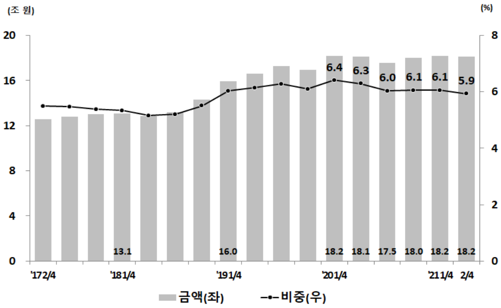
- 후순위채 규모는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13]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 확대된 4.9조 원이었으며,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로 확대됨
- 기타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증가한 18.2조 원으로,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0.4%p 축소된 5.9%를 기록함

〈그림 63〉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4〉 기타부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자본

○ 2021년 2/4분기 손해보험 총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45.9조 원을 기록함

- 대형사, 외국사, 중소형사의 총자본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 2.7%, 2.1%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축소[14]되었으나 이익잉여금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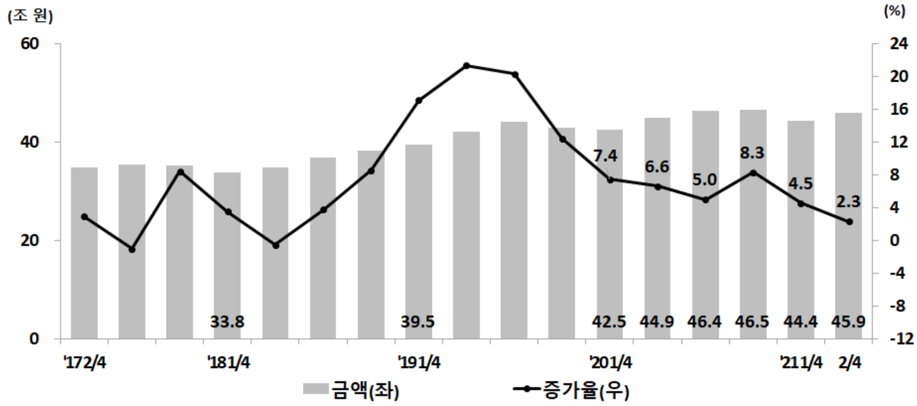
---

12) 2021년 2/4분기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은 각각 4,990억 원, 3,790억 원, 3,5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함

13)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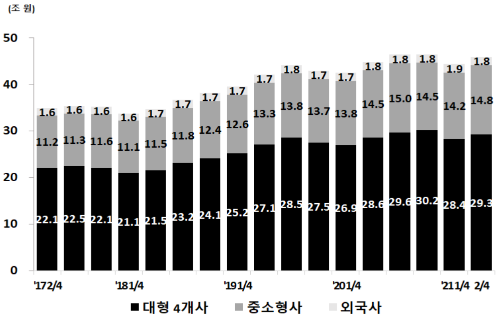
14)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에 포함됨

〈그림 65〉 손해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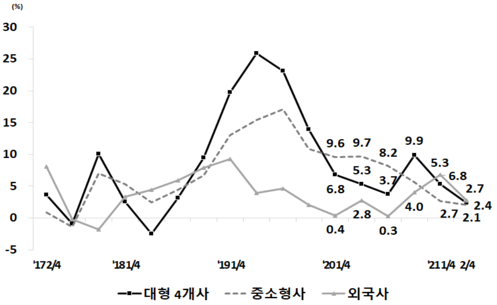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7〉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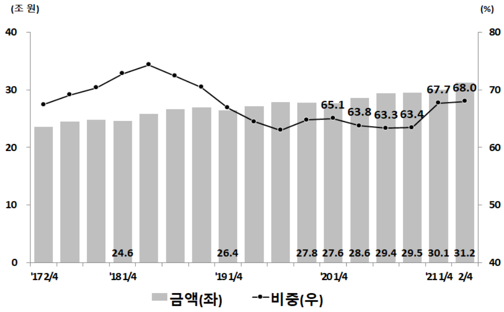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2/4분기 손해보험의 이익잉여금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0%였으며, 당기순이익 확대 등으로 비중이 높아짐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비중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의 평가이익이 감소하여 18.3%로 축소됨
- 신종자본증권 비중은 지난 해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15])으로 확대된 이후 2.6%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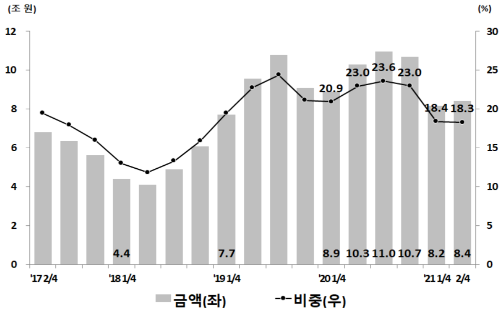
15) 2020년 11월 메리츠화재는 1,15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

〈그림 68〉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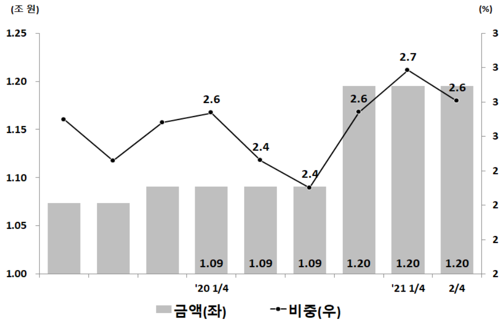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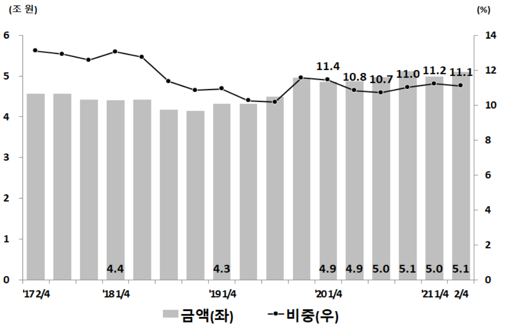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0〉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1〉 기타자본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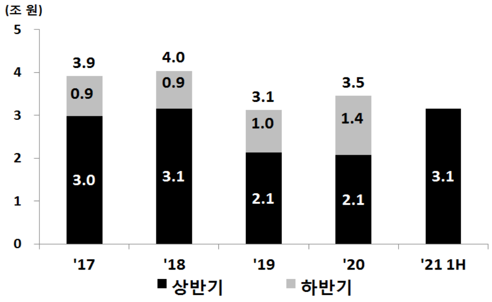
2. 수익성

가. 당기순이익

○ 2021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8%, 47.6%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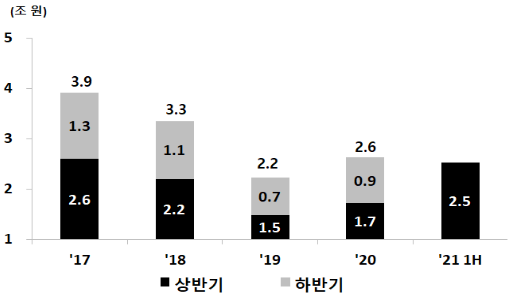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투자영업이익이 채권매각에 따른 이자수익 축소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이 금리 및 주가 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전입액 감소 등으로 크게 개선됨
- 손해보험의 경우 투자영업이익이 금융자산 처분이익 축소로 감소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이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하락과 전년도 고액사고[16]의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개선됨
- 한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일부 회사들의 특별배당금 수령으로 배당수익이 일시적으로 확대됨

〈그림 72〉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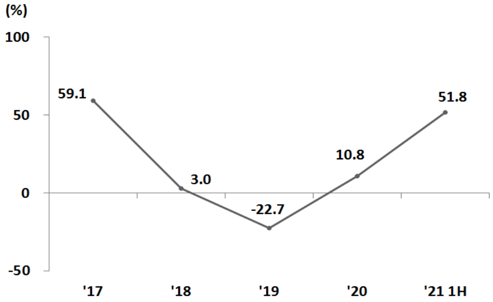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3〉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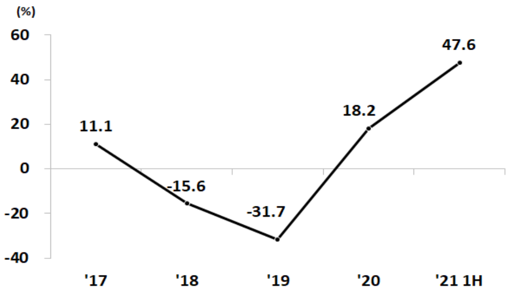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4〉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5〉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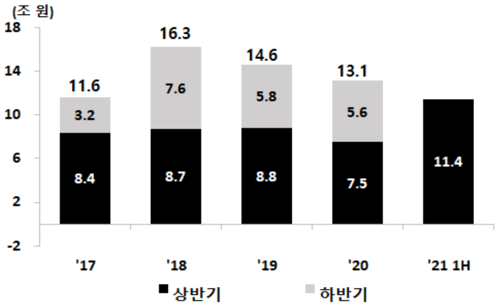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6) 2020년 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를 의미함

○ 2021년 상반기 은행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5% 증가한 11.4조 원을, 증권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0.8% 증가한 5.2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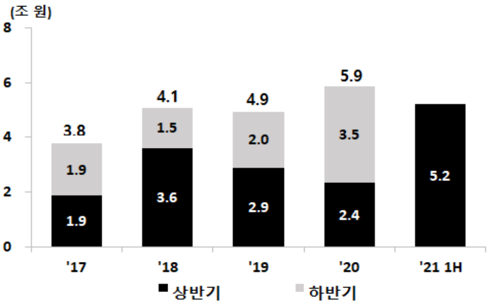
- 은행산업은 대출자산 증가로 인한 이자수익 확대가, 증권산업은 투자수요 확대로 인한 수수료 수익 증가가 주요한 원인임

〈그림 76〉 은행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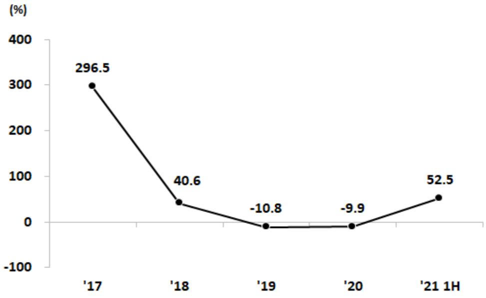
주: 국내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성됨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77〉 증권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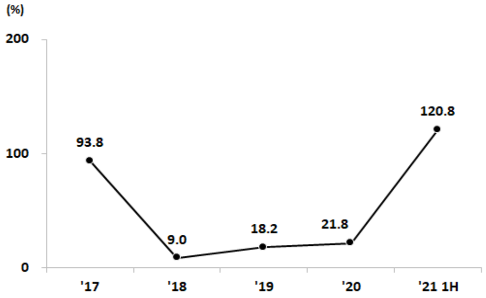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78〉 은행 당기순이익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79〉 증권 당기순이익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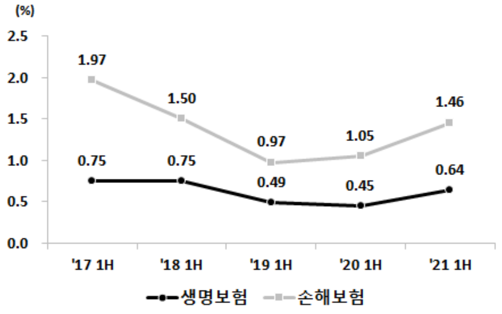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나. ROA, ROE

○ 2021년 상반기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ROA와 ROE는 모두 당기순이익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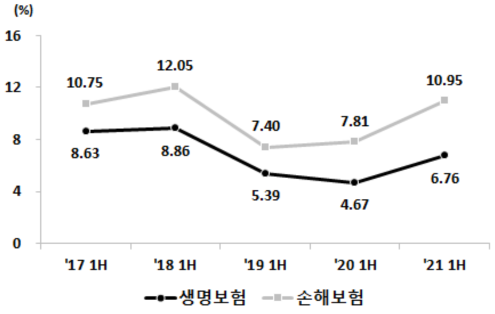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 ROA는 0.64%로 전년 동기 대비 0.19%p 상승하였으며, 손해보험산업 ROA는 1.46%로 전년 동기 대비 0.41%p 상승함
- 생명보험산업 ROE는 전년 동기 대비 2.09%p 상승한 6.76%를, 손해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 대비 3.14%p 상승한 10.95%를 나타냄

〈그림 80〉 보험산업 ROA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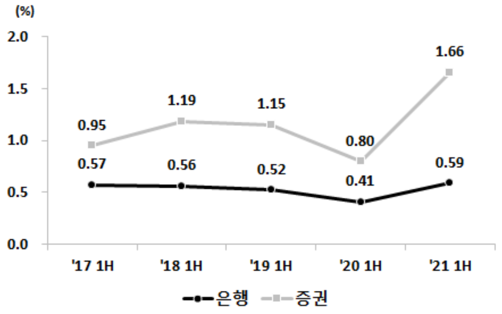
〈그림 81〉 보험산업 RO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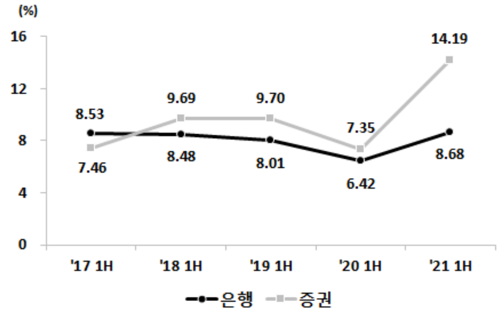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은행 및 증권산업의 ROA와 ROE는 당기순이익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크게 상승함

〈그림 82〉 은행 및 증권산업 ROA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83〉 은행 및 증권산업 ROE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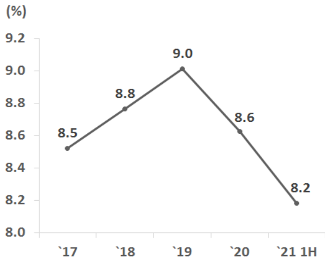
다. 보험영업이익 관련 지표

1) 생명보험

○ 2021년 상반기 생명보험산업의 해지율[17])은 2020년 말 대비 감소하였으나, 사업비율과 보험금 지급률[18])은 2020년 말 대비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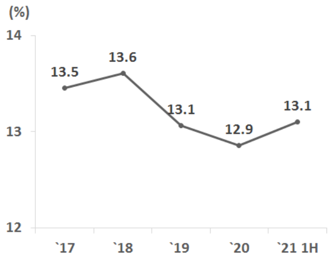
- 해지율은 2021년 상반기 8.2%를 나타냈으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해지율이 모두 전년 말 대비 감소함
- 사업비율은 2020년 말 대비 0.2%p 상승한 13.1%를 나타냈으며, 다른 그룹에 비하여 대형사의 사업비율 증가 폭이 큼
- 보험금 지급률은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2021년 상반기 90.8%까지 상승함

〈그림 84〉 생명보험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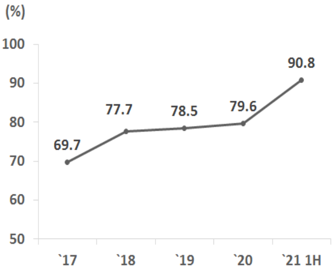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5〉 생명보험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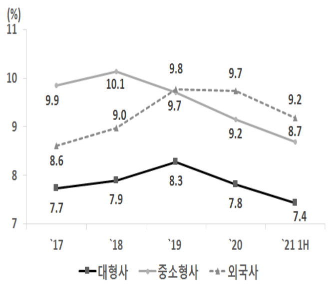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6〉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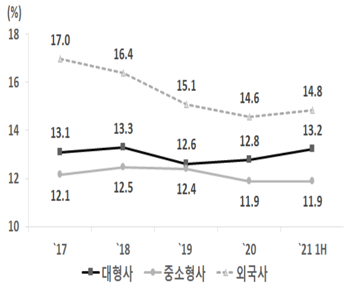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7〉 회사 유형별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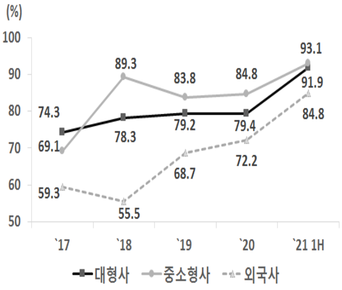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8〉 회사 유형별 사업비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9〉 회사 유형별 보험금 지급률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17)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으로 계산하며, 2021년 2/4분기는 연율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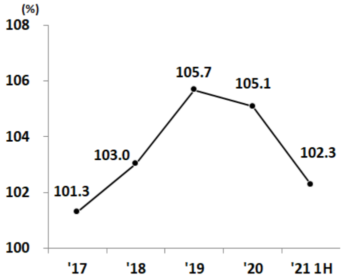
18)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손해보험

○ 2021년 상반기 손해보험산업 합산비율은 손해율 개선으로 전년 말 대비 2.8%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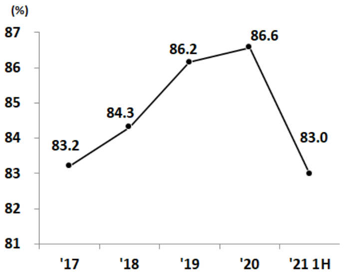
- 손해보험산업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일반손해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되며 전년 말 대비 3.6%p 하락한 83.0%를 기록함
- 사업비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에 따른 마케팅 효과[19]와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의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0.8%p 상승한 19.3%를 나타냄

〈그림 90〉 손해보험 합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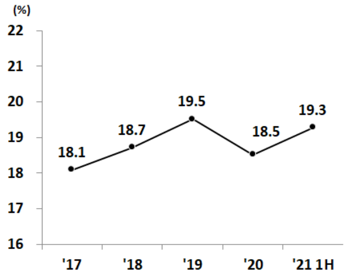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1〉 손해보험 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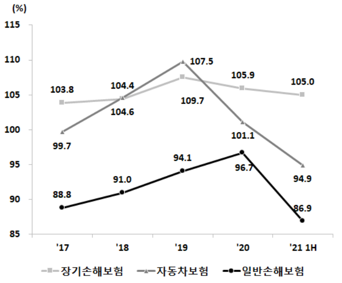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2〉 손해보험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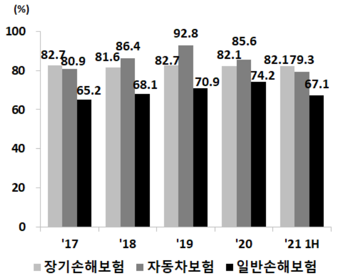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3〉 손해보험 종목별 합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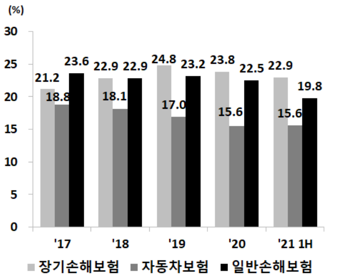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4〉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5〉 손해보험 종목별 사업비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9)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수요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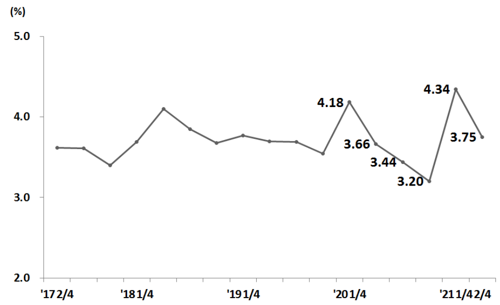
라. 투자영업이익 관련 지표

1) 운용자산이익률

○ 2021년 2/4분기 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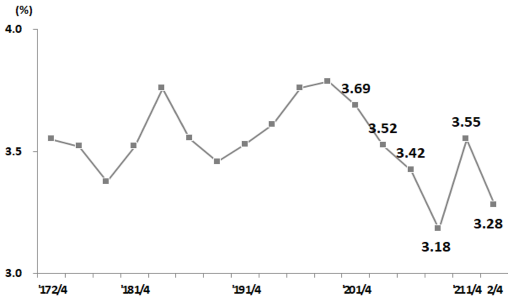
-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2021년 1/4분기 일부 회사의 배당수익 증가로 4.34%까지 상승하였으나 2/4분기에는 전년도 채권 매각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3.75%로 하락함
-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금리 상승 등 투자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채권매각을 통한 일회성 이익이 이자수익 감소로 이어져 전년 동기 대비 0.24%p 하락한 3.28%를 기록함

〈그림 96〉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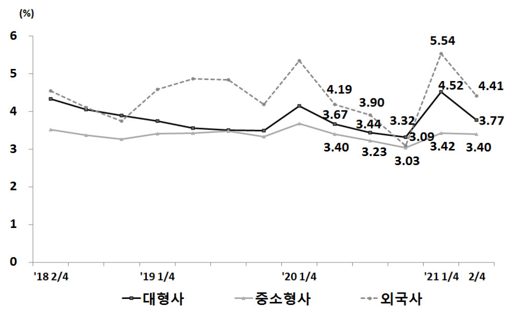
〈그림 97〉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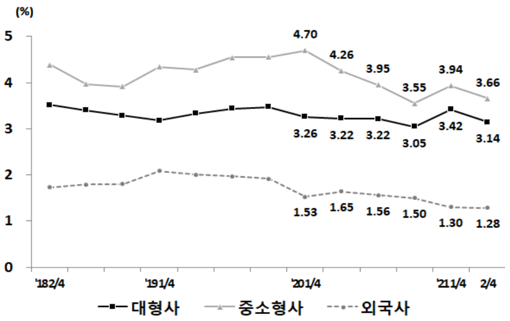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중 대형사 및 외국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분기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림 9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9〉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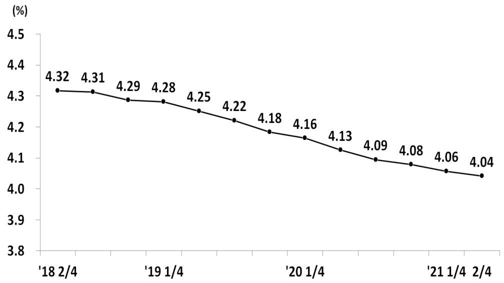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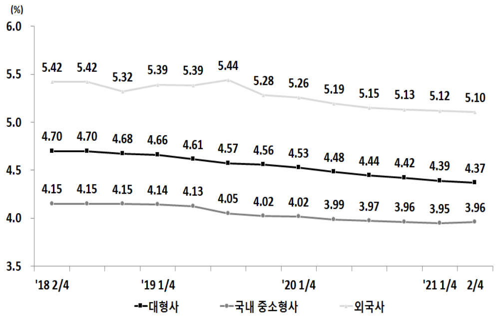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4.04%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 3.75%보다 0.29%p 높은 수준임
- 회사 그룹별로 보면 대형사 및 외국사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각각 4.37%, 5.10%로 하락세를 지속한 반면, 중소형사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3.96%로 상승 전환됨

〈그림 100〉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그림 101〉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주: 평균 금리 = (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적립금 × 적용 금리수준의 중간 값) / 총보험료 적립금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마. 이익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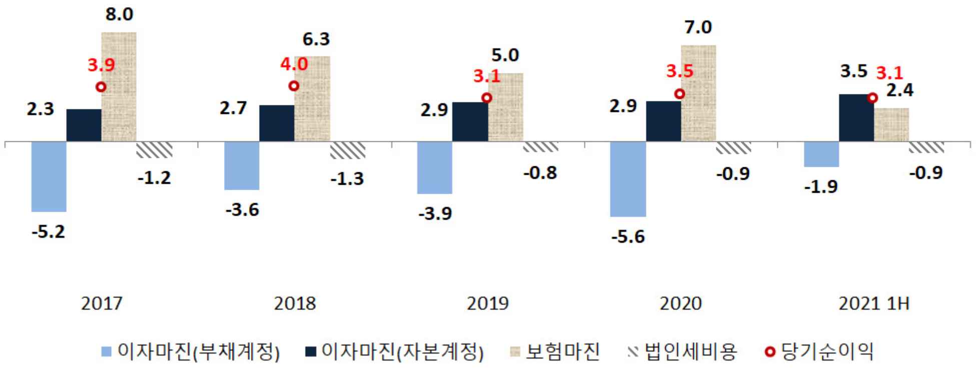
1)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 2021년 상반기 생명보험산업의 이자마진과 보험마진은 각각 1.6조 원, 2.4조 원이었으며, 전체 당기순이익은 3.1조 원 흑자를 기록함

- 자본계정 이자마진은 3.5조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계정 이자마진은 운용자산이익률이 보험부채 적립이율보다 낮아 -1.9조 원을 기록함
- 보험마진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보증준비금 감소, 사업비 감소 등으로 2.4조 원을 나타냄

〈그림 102〉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단위: 조 원)



주: 1) 이자마진(부채계정) = 책임준비금 평균 잔액 × (자산운용이익률 -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2) 이자마진(자본계정) = 자본 평균 잔액 × 자산운용이익률
3) 보험마진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이자마진(부채계정) - 이자마진(자본계정)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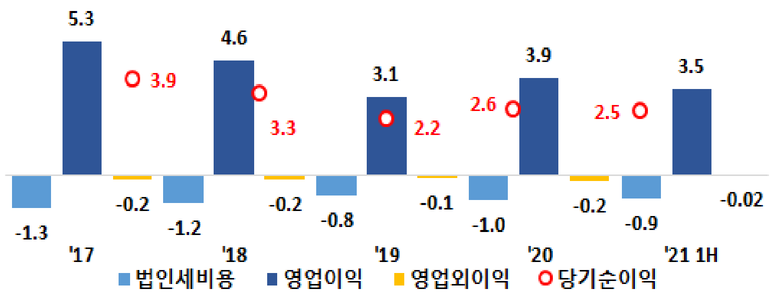
2) 손해보험

가) 당기순이익 구성

○ 2021년 상반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손해율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으로 2.5조 원 흑자를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3.5조 원 흑자, 영업외이익은 0.02조 원 적자를 기록함

〈그림 103〉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단위: 조 원)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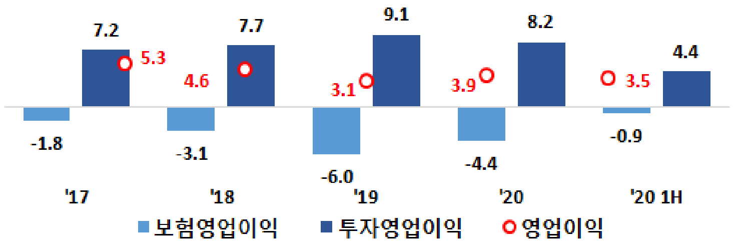
나) 영업이익 구성

○ 2021년 상반기 손해보험산업 영업이익은 3.5조 원 흑자를 나타냈으며, 보험영업에서는 0.9조 원 적자를, 투자영업에서는 4.4조 원 흑자를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개선 및 고액사고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 폭이 크게 축소됨
- 투자영업이익은 금리 상승으로 채권 등 금융자산 처분이익이 축소되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그림 104〉 손해보험 영업이익 구성

(단위: 조 원)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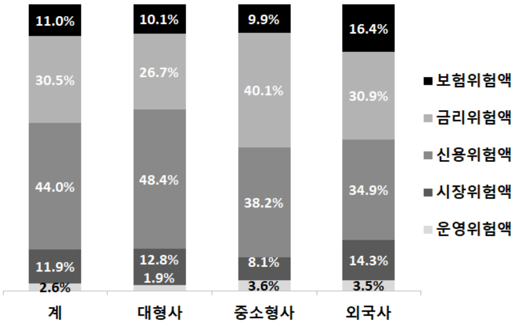
3. 리스크

가. 총괄

○ 2021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 모두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금리위험이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위험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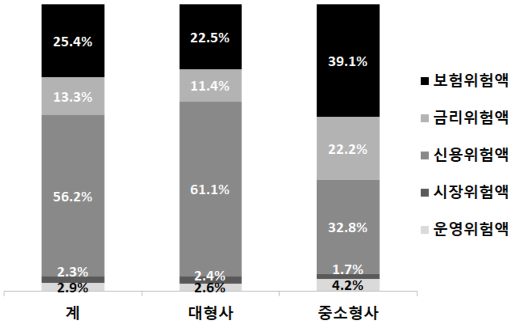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의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액 비중이 48.4%로 가장 높은 반면, 중소형사는 금리위험액 비중이 40.1%로 높게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는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액 비중이 61.1%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형사는 보험위험액이 39.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10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10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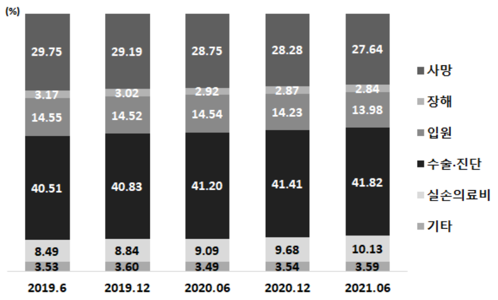
나. 보험리스크

1) 생명보험

○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져 중 수술·진단,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사망, 장해, 입원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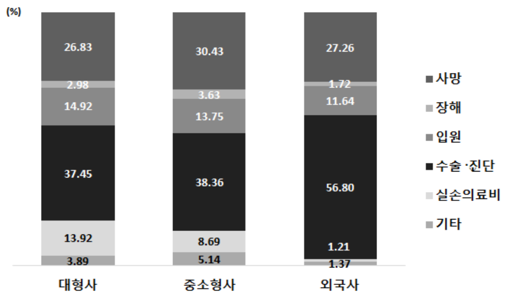
- 수술·진단, 실손의료비 보장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41%p, 0.45%p 증가한 반면, 사망, 장해, 입원 보장 비중은 각각 0.64%p, 0.03%p, 0.25%p 감소함
- 외국사의 경우 수술·진단 보장 비중이 56.80%로 큰 편이고, 대형사의 경우 실손의료비 보장 비중이 13.92%로 큰 편임

〈그림 107〉 보장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사망, 장해, 입원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108〉 회사 유형별 보험보장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사망, 장해, 입원 순임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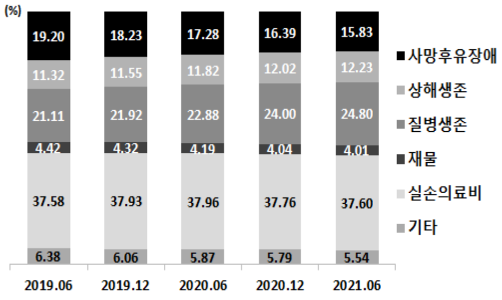
2) 손해보험

가) 장기손해보험

○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저 중 상해생존, 질병생존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사망후유장애, 재물,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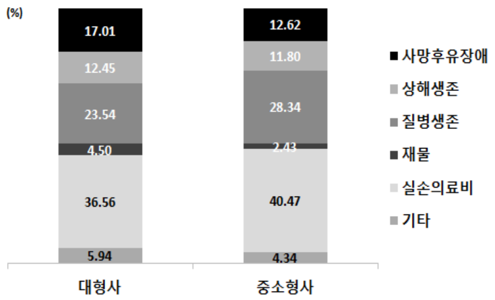
- 상해생존, 질병생존 익스포저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21%p, 0.80%p 증가함
- 반면, 사망후유장애와 재물, 실손의료비 익스포저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56%p, 0.03%p, 0.16%p 감소함

〈그림 109〉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 상해생존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0〉 회사 유형별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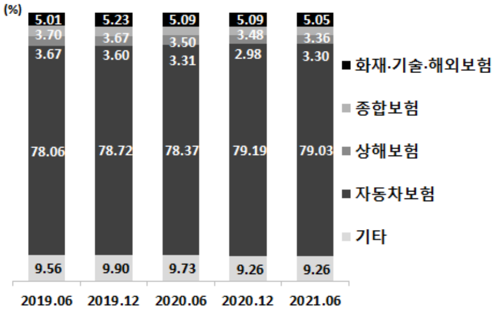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 상해생존 순임
자료: 경영공시

나) 자동차·일반손해보험

○ **[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저]** 2021년 상반기 상해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직전 반기 대비 증가한 반면, 상해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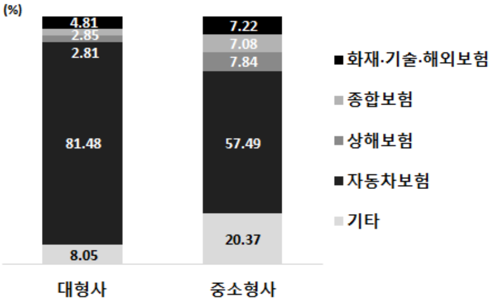
- 상해의 익스포저 비중은 직전 반기 대비 0.32%p 증가한 반면,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자동차보험은 각각 0.04%p, 0.12%p, 0.16%p 감소함
-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익스포저 비중이 직전 반기 대비 4.92%p 크게 감소하며, 전체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을 감소시킴

〈그림 111〉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1)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2) 기타에는 해상보험, 근재·책임보험, 기타일반보험, 외국인 보험이 포함됨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2〉 회사 유형별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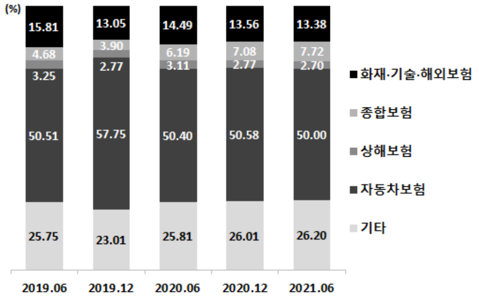


주: 1)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2) 기타에는 해상보험, 근재·책임보험, 기타일반보험, 외국인 보험이 포함됨
자료: 경영공시

○ **[지급준비금위험 익스포저]** 종합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직전 반기 대비 증가하였고, 자동차보험과 나머지 일반손해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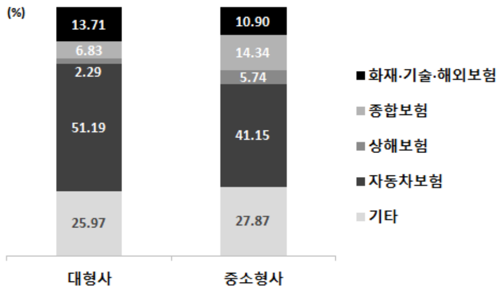
- 종합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직전 반기 대비 0.64%p 증가하였으나 화재·기술·해외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은 각각 0.18%p, 0.07%p, 0.58%p 감소함
- 화재·기술·해외보험의 경우 중소형사는 직전 반기 대비 0.50%p 증가한 반면, 대형사는 0.42%p 감소하였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형사는 0.14%p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는 6.86%p 감소함

<〈그림 113〉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져 비중



주: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4〉 회사 유형별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져 비중



주: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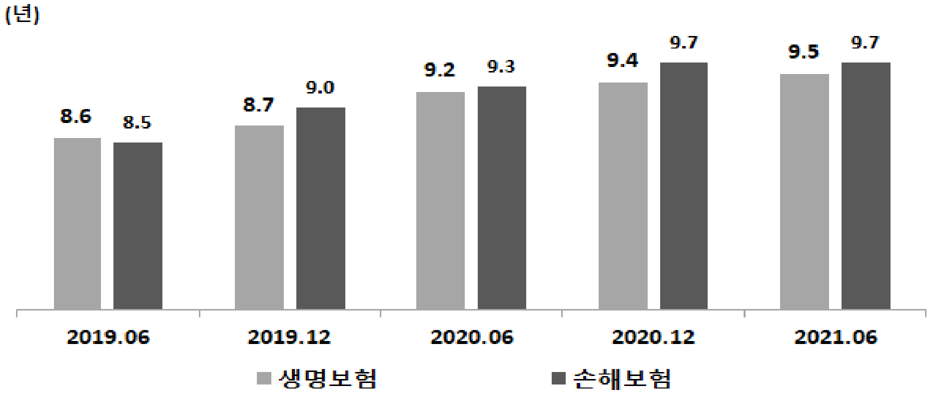
다. 자산리스크

1) 금리위험

○ 생명보험 자산듀레이션은 직전 반기 대비 0.1년 확대되었으나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직전 반기와 동일함

- 저금리에 따른 금리 역마진에 대응하여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등 자산듀레이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그림 115〉 자산듀레이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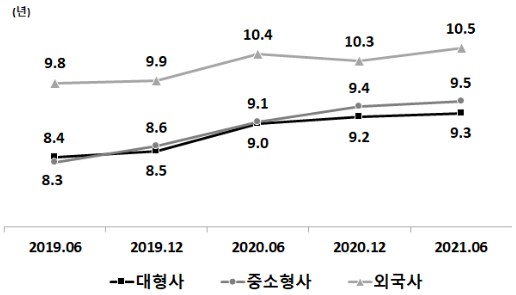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외국사의 자산듀레이션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의 자산듀레이션이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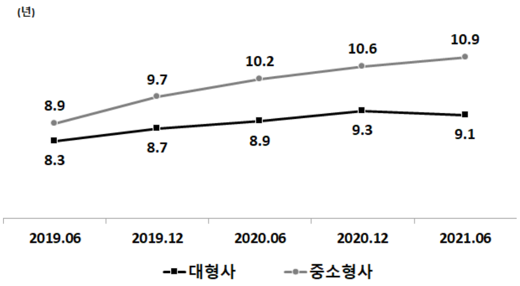
- 생명보험 외국사의 자산듀레이션은 직전 반기 대비 0.3년 확대되었고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1년 확대됨
- 손해보험 중소형사의 자산듀레이션은 직전 반기 대비 0.3년 확대되었으나, 대형사는 0.2년 축소됨

〈그림 116〉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7〉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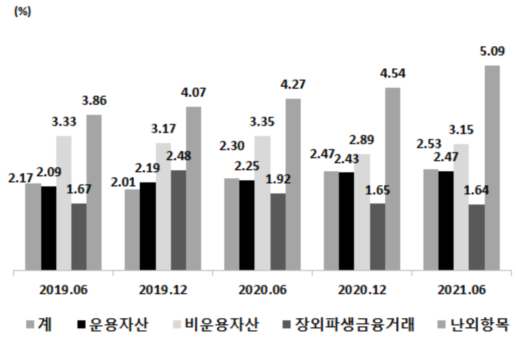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2) 신용위험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신용위험계수는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06%p, 0.03%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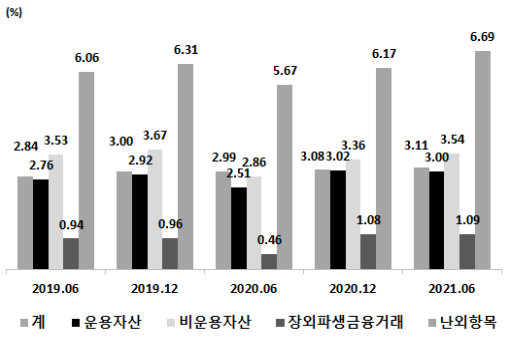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이 2021년 6월 말 1,036.0조 원으로 6월 말 대비 16.2조 원 증가하는 등 신용위험액 증가 등으로 신용위험계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임[20]

〈그림 118〉 생명보험 신용위험계수



주: 왼쪽부터 계, 운용자산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9〉 손해보험 신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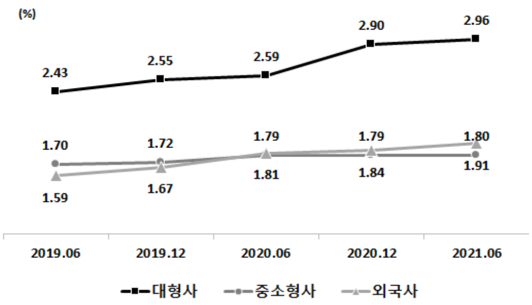
주: 왼쪽부터 계, 운용자산 순임
자료: 경영공시

2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9. 17), "'21. 6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 비율 현황"

○ 생명보험의 신용위험계수는 소폭 확대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유사하거나 소폭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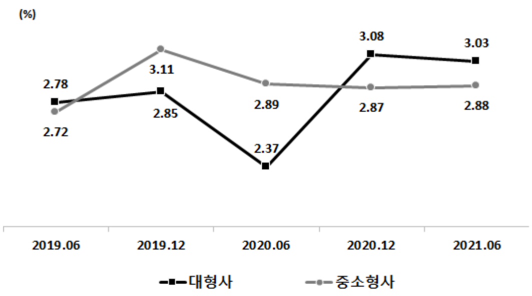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의 신용위험계수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06%p, 0.07%p 상승함
-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의 신용위험계수는 0.05%p 하락한 반면, 중소형사는 0.01%p 소폭 상승함

〈그림 120〉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21〉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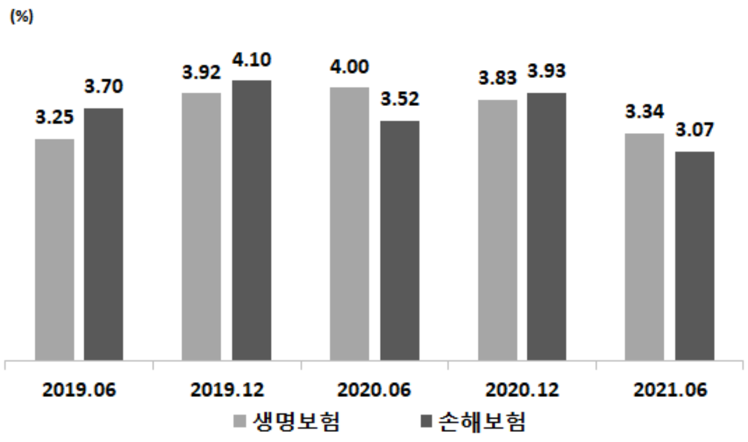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3) 시장위험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시장위험계수는 각각 직전 반기 대비 모두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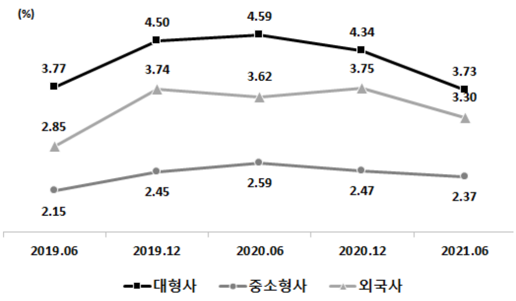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의 시장위험계수가 중소형사에 비해 0.61%p 크게 하락한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중소형사의 시장위험계수가 대형사에 비해 1.21%p 크게 하락함

〈그림 122〉 시장위험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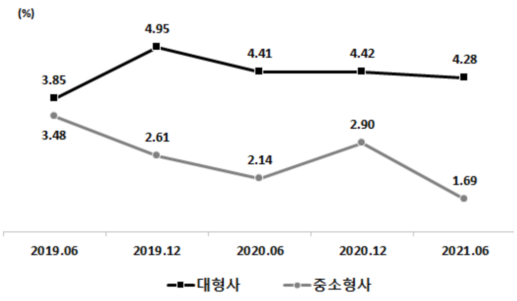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그림 123>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24>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라.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LAT)

1) 생명보험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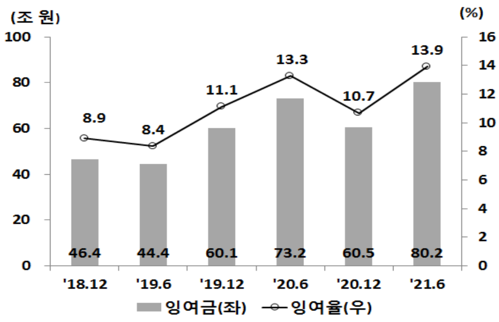
○ 2021년 6월 말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평가대상준비금과 LAT 평가액의 차이) 비율은 2020년 말 대비 크게 상승함

- 2021년 상반기 LAT 잉여율은 13.9%로 전년도 말 10.7%에 비해 3.2%p 증가하였음

○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21년 6월 말 대형사 LAT 잉여율의 상승이 중소형사 및 외국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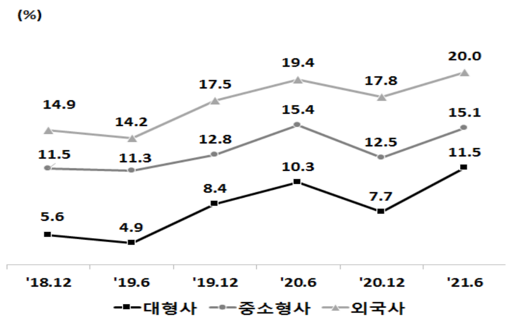
- 대형사의 LAT 잉여율은 11.5%, 중소형사는 15.1%, 외국사는 20.0%로 전년 말 대비 각각 3.9%p, 2.6%p, 2.2%p 증가하였음

<그림 125> 생명보험회사 LAT 잉여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경영공시

<그림 126>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LAT 잉여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경영공시

4. 시장경쟁

가. 시장점유율

1) 생명보험 시장점유율

○ 2021년 2/4분기 그룹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대형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축소됨

-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변액보험 및 저축보험 신규 판매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p 증가한 33.3%를 나타냄
- 대형사와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46.3%, 20.3%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8%p, 0.4%p 감소함

○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2021년 2/4분기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됨

- 중소형사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44.8%로 전년 동기 대비 5.5%p 확대되었으며, 이는 일부 중소형사의 변액보험 및 저축보험 신규 판매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대형사와 외국사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34.8%, 20.4%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9%p, 0.6%p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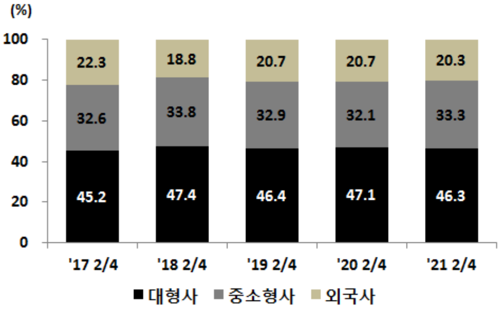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21]는 전년 동기 대비 8 상승한 983,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9 상승한 1,251임

-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일부 중소형사의 신규 판매가 크게 확대되면서 상승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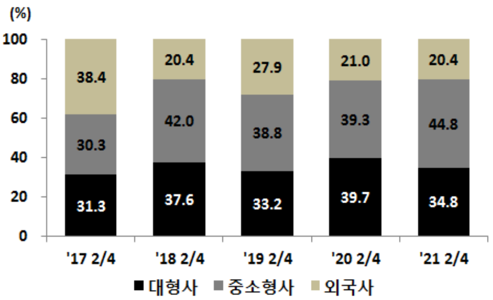
21) 허핀달 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그림 12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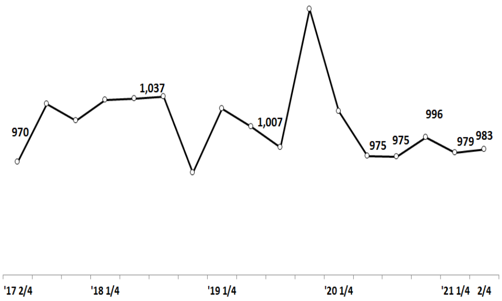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2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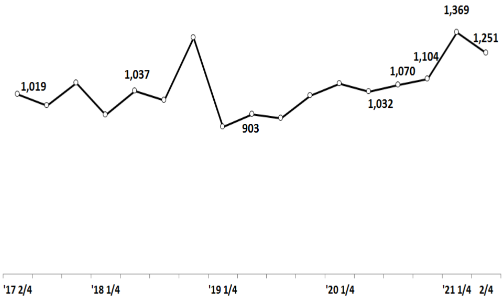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29〉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0〉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시장점유율

○ 2021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 그룹별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축소되었으며,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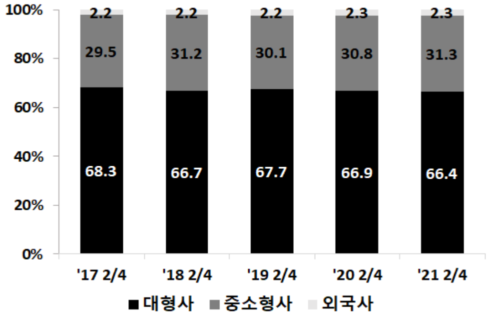
- 대형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2020년 2/4분기 66.9%에서 2021년 2/4분기 66.4%로 축소되었고, 같은 기간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30.8%에서 31.3%로 확대됨

○ 장기손해보험의 그룹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2021년 2/4분기 대형사 및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된 반면,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됨

- 2021년 2/4분기 대형사 및 외국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각각 59.9%, 0.8%로, 전년 동기 대비 1.8%p, 0.8%p 축소됨
- 같은 기간 중소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36.7%에서 39.3%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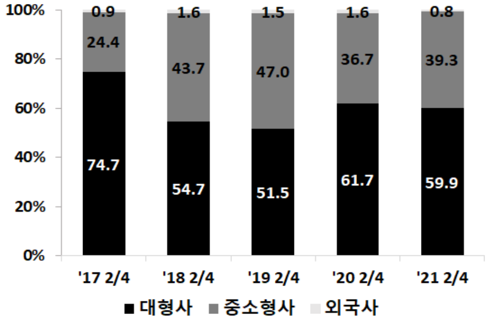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334로 전년 동기 대비 23 하락하였으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371로 전년 동기 대비 113 하락함

〈그림 13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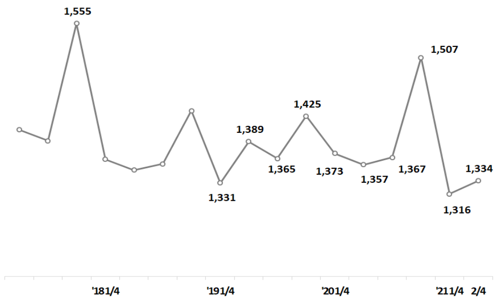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2〉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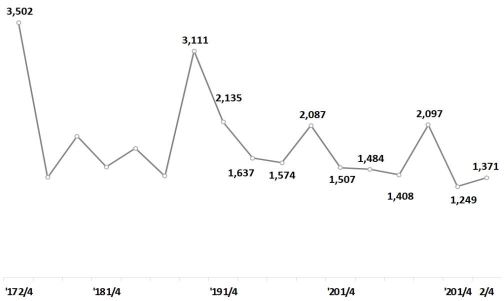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4〉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판매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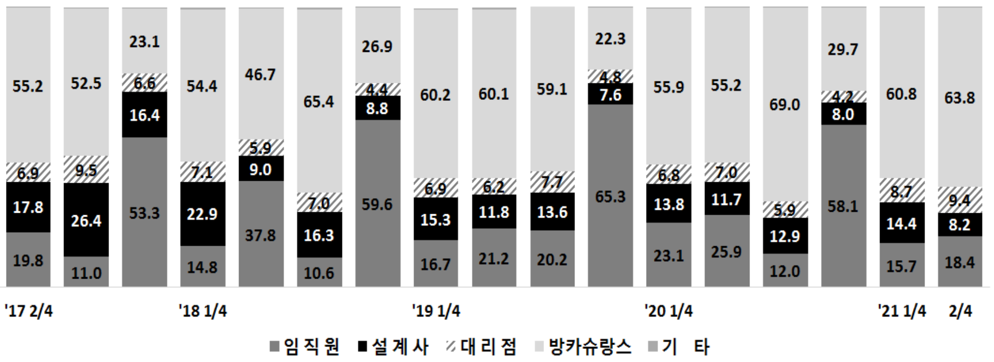
1) 생명보험 판매채널

○ 2021년 2/4분기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저축보험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설계사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종신보험 판매 감소 등으로 축소됨[22)]

-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8.6%p 증가한 63.8%를 나타난 반면, 설계사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같은 기간 3.5%p 감소한 8.2%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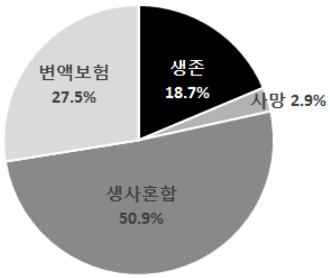
〈그림 135〉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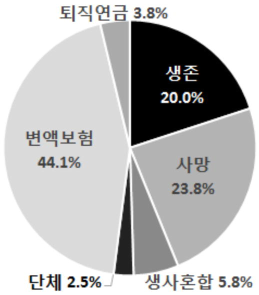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6〉 방카슈랑스 채널 종목별 비중 (2021년 2/4분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7〉 설계사 채널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 (2021년 2/4분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2) 보험회사의 비대면 채널 실적은 임직원 채널 실적에 포함되며, 대리점 채널의 경우도 비대면 채널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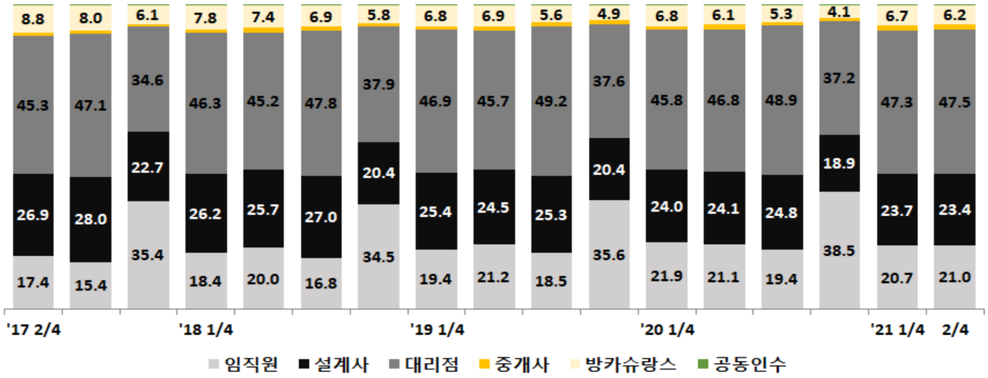
2) 손해보험 판매채널

○ 2021년 2/4분기 손해보험 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의 경우 대리점 채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설계사 채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됨

- 대리점 채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47.5%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증가한 반면, 설계사 채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23.4%로 전년 동기 대비 0.7%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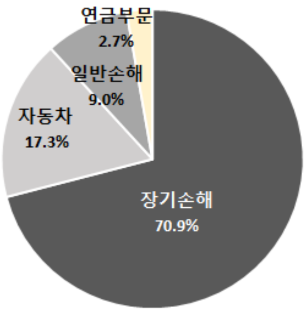
〈그림 138〉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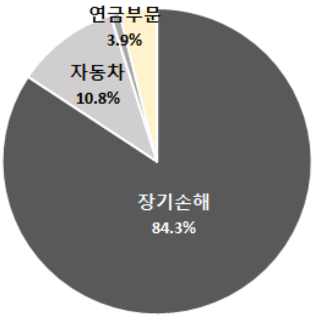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9〉 대리점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 (2021년 2/4분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40〉 설계사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 (2021년 2/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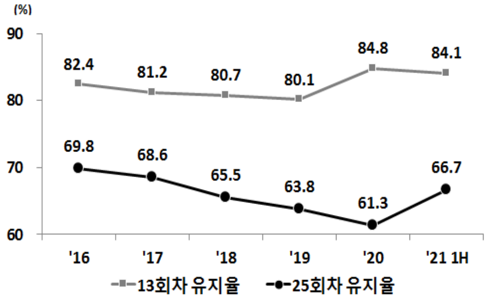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보험계약 관리

○ 2021년 상반기 13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의 경우 생명보험은 2020년에 비해 하락한 반면, 손해보험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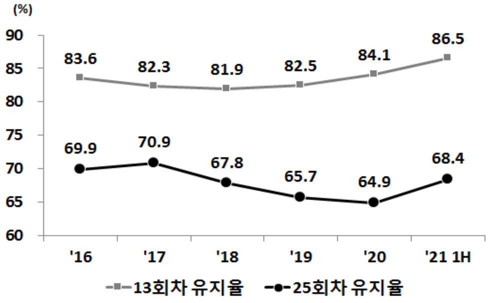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25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도에 비해 상승 전환됨

〈그림 141〉 생명보험 계약유지율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그림 142〉 손해보험 계약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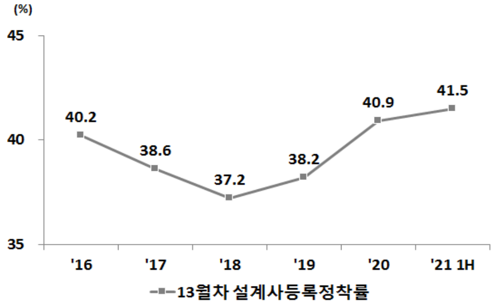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 2021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모두 전년에 비하여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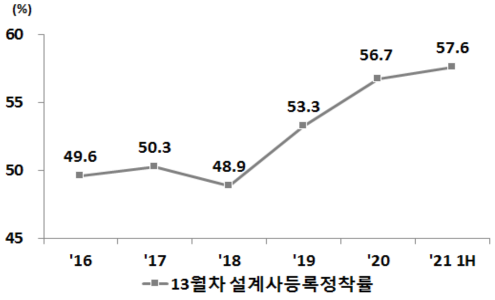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2019년 상승 전환 후 2021년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함

〈그림 143〉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정착률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그림 144〉 손해보험 설계사 등록 정착률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도서회원 가입안내

<table>
<tr><th>회원</th><th>연회비</th><th colspan="2">제공자료</th></tr>
<tr><td>법인
회원</td><td>₩300,000원</td><td rowspan="3">-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td><td>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td></tr>
<tr><td>특별
회원</td><td>₩150,000원</td><td rowspan="2"></td></tr>
<tr><td>개인
회원</td><td>₩150,000원</td></tr>
</table>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 - 9113 | 팩스 : (02)3775 - 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보험동향 99호 [2021년 가을호]

발 행 일 2021년 11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문 의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02-3775-9091)
인 쇄 소 경성문화사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